금주일언 대인은 무욕을 몸에 익히어 가는 곳마다 밝게 비추며 비록 괴로움과 즐거움을 만나도 높은 체 그 지혜를 나타내지 않는다.
〈법구경·명철품 259절〉

東大新聞

발행인 송석구
편집인겸주간 송재운
부주간 이준성
편집국장 이익소
편집장 김성영

펴 낸 곳 :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6(☎260-3492)
FAX(02)279-1270
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770-2057)

제 1176 호 〈주간〉 1964. 1. 1 등록번호 다-10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95년(불기2539년) 5월24일 (수요일) 1

전국고교생 백일장 개최
시부 장원 양윤의양

올해로 33회를 맞는 본사주최 전국 고교생 문학콩쿠르가 1차예선에 입선한 남녀고교생 1백19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부, 수필부, 소설부로 나뉘어 지난 20일 동국관(L301)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오전 11시 개회식을 가진뒤 2시간여동안 해당 부문작품 창작을 한후 오후 4시부터 심사평 및 시상식을 가졌다.

이번 고교백일장의 심사는 △시부=최순열(국교·시인)교수, 홍신선(수원대 국문·시인)교수 △소설부=김용철(법인사무처사업부장·소설가)부장, 한용환(국교·소설가)교수 △수필부=홍기삼(국문학·평론가)교수, 이정순(독문학)교수가 맡았으며 각 부문별 심사소감을 듣고 시상에 들어갔다.

시상식에서는 시부 장원에 양윤의(숭의여고3)양이, 수필부 장원에는 정리태(혜성여고2)양이 각각 선정됐으며 소설부는 장원없이 홍연주(안양예고3)양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작품 5·6·7면)

미군, 지하철역서 시민 폭행
본교생 공정수사요구 농성

주한미군이 지하철역 안에서 한국인을 집단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대학생들의 규탄시위 및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9일 오후 10시50분경 충무로역구내에서 한국인 여자를 포함한 주한미군 11명이 시민 조정국(29·서울 도봉구 방학동)씨를 집단폭행하여 얼굴등에 심한 부상을 입히고 충무로역 지하파출소로 인계되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지하철안에서 5백cc맥주컵 등으로 소란을 피우고 한국여성을 희롱하던 미군들이 이를 말리던 조정국씨를 충무로역에서 무차별 폭행을 가한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주위에 있던 시민들과 본교 학생들이 이를 말리려 하자 미군들은 이들에게 역시 주먹을 휘둘렀고, 시민들에 의해 충무로역 지하 파출소로 연행되어 갔다.

이후 중부경찰서로 인계하는 과정에서 "올바른 조사를 위해 같이 가야한다"는 시민들과 학생들을 경찰측이 경찰서로의 출입을 막아 40여명의 시민과 본교 학생들은 새벽 2시까지 경찰측의 분명한 상황설명과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며 농성을 진행하였다.

이날 사건현장부터 농성자리에 참가했던 본교 김용구(사4)군은 "주한미군이 범죄를 저지르면 그 대상이 한국사람이라도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미군헌병대에 인계되어진다"며 한미행정협정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사건과 관련해 지난 22일 단국대 조통위 소속 학생과 남총련 학생들은 외인아파트 등에서 기습시위를 벌이며 △철저한 진상조사 △한미행정협정개정 △미국의 공개사과 등을 촉구했다.

한편 중부경찰서는 형사4반과 외사계에서 합동수사를 진행한후 이들을 미군헌병대에 인계하고, 에이브러햄 앤더슨 상병 등 주한미군과 그 가족 5명에 대한 출석요구를 주한 미8군 헌병대에 전달했다.

'양주동 전집' 출판기념회

고(故)양주동선생의 '양주동 전집'출판기념회가 오는 26일 오후6시 다향관에서 있을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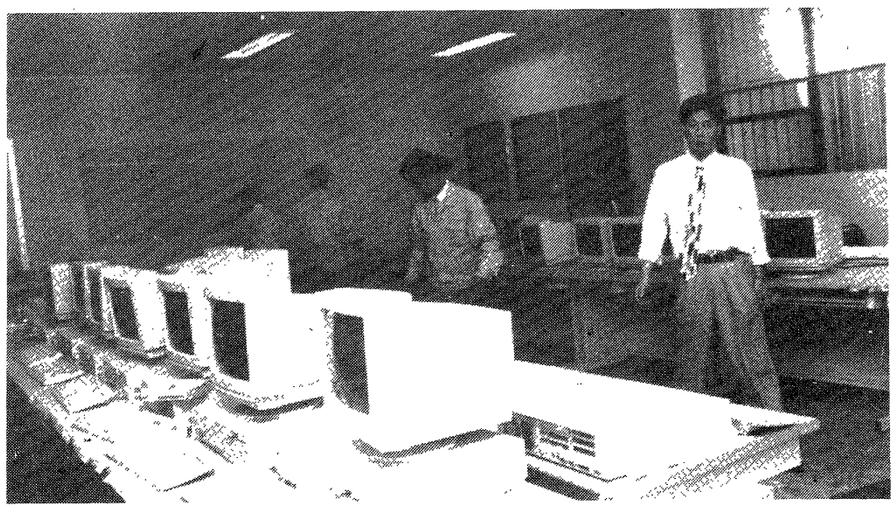
국어국문학자와 영어영문학자로 활동했고 향가연구, 수필, 번역문학 등 한국문학의 발전에 공헌을 한 양주동박사의 전집이 출판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전집은 간행위원장을 맡은 국문과 임기중교수와 여러 교수들의 3년여에 걸친 자료수집과 고증으로 지난 4월 제작에 들어갔었다.

현재 1차분 5권이 완간되었고 연말까지 2차분 7권이 완간될 예정이다.

이번 출판을 주관한 양주동선생기념사업회(회장=김영배·국문학)는 다음 사업으로 기념비건립과 학술상제정등을 계획중이다.

학과평가준비 가시적항목중심
학생참여부분 부족…관심 이끌어내지 못해
전반적 시설 개보수 시행 마무리단계



◇올해 평가학과로 경상계열학과가 선정돼 본교에서는 경영, 무역, 회계학과가 해당된다. 학과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준비는 마무리단계에 들어갔으며 자체평가는 6월초에 있을 예정이다. 사진은 동국관 M동 2층에 새로 마련된 정보관리학과 CASE실습실의 모습.

오는 6월 학과평가를 받게되는 경영·무역·회계학과의 평가 준비가 시설·설비 영역 등 가시적인 항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학생들의 관심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경상대(학장=황용호·회계학)는 올해 학과평가로 선정된 경상계열의 경영학과, 무역학과, 회계학과에 대한 평가대비로 전반적인 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시행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이번달 초부터 약 10일간 진행된 공사의 내용을 보면 우선 공용실습실의 개수를 들수있다. 강의환경 개선을 위해 공용실습실내의 PC교체, 바닥 타일과 전기배선 교체 등의 내부개선이 이루어졌으며 학회실 배치, 교수연구실 재배치등의 공간이동도 이루어졌다. 또한 이전까지 동국관L동 5층에 위치하던 정보관리학과 실습실을 지하로 이동하고 그 공간에 중간의 벽을 제거하고 간이 칸막이를 설치해 3개의 교수연구실을 마련했다. 교수회관에 있던 김정옥(희계학)교수외 2명의 연구실이 이전돼 교수회관의 공간은 신규교수의 연구실로 사용된다. 경상대 학생회실은 3층에서 2층 학장실옆으로 옮겨지고 필요 물품의 교환등이 이루어졌다.

이와 더불어 동국관 M동 105, 106호에 위치했던 경상대 대의원실과 여학생 휴게실은 경상대 계열 열람실로 개조되어 열람테이블이 마련되고 도서도 비치될 예정이다. 도서는 과별로 50~60권 가량이 들어왔으며 부족분은 도서관등에서 구입할 것이다.

또한 평가항목에 포함되는 경영·무역·회계학과의 연구실인 경영관리 연구소, 회계연구소, 해외개발연구소도 교수회관에서 동국관으로 옮겨지고 시설등이 보강된다.

이번 공사에서 가장 획기적으로 바뀐것으로는 영상강의실의 신설을 들 수 있다. 일반 강의실이던 동국관 M동 203, 204, 209호를 영상강의실로 바꾸었는데 203, 204호는 파워스크린으로의 교체, 암막 공사, 방음, 조명 공사 등이 이루어졌으며 209호는 평소에는 영상강의실로 사용하고 행사가 있을때에는 학술회의 개최장등으로 개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변동가능한 집기로 교체됐다.

이외에도 각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 교체등이 이루어졌다. 이런 제반시설의 개보수에 대해 시설면에서는 타학교와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교학과의 한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학과평가의 항목에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가시적인 것들만이 평가의 대상이 돼 학생들은 관심조차 끊은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평가의 목적대로 내실을 다지는 것이 아닌 보여주기식의 준비만이 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실제로 평소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 학교측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요구들을 대상학과에서는 학과평가를 계기로 마련하고 있을뿐 아니라 계열학과의 평가이므로, 평가받는 3개과의 성적이 합산되어 전체 성적이 산출되기 때문에 학교측도 전체 순위가 좋은 무역·회계학과가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번 학과 통폐합논의에서 경상대를 제외하는 등의 과행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본교의 자체평가는 6월 10일경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전체적인 준비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정각원 고승법회

정각원(원장=이법산·선학)은 다음달 5일 봉도사 청하스님을 모셔서 '생활불교와 의식개혁'을 주제로 한 고승법회를 갖는다.

이번 학기 마지막 법회를 맞는 정각원의 한 관계자는 "교외 신자들과 교직원이 참석하는 비율에 반해서 학생들의 관심이 적다"며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부탁했다.

보 리 수

참 회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은 없다. 누구든 살아가다 보면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고 실수도 할 수 있다. 손톱만한 잘못도 저지르지 않고 산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만약 '나는 절대로 아무런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절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누구든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서, 어떤 경우에도 잘못이 묵인돼서는 안된다. 작은 잘못도 누적되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큰 불행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잘못은 그것이 크든 작든 그때 그때 뉘우치고 반성해서 다음에는 다시는 그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이러한 반성과 뉘우침을 불교에서는 '참회'라고 한다.

참회는 범어 크사마야(Ksamaya)를 소리대로 옮긴 참마(懺摩)의 첫자와 그 뜻인 뉘우칠회(悔)자를 합친 범어와 한자의 합성이다. 크사마야는 원래 '참고 용서를 빈다(忍恕)'는 뜻인데 '뉘우침(悔)'의 뜻으로도 쓰이고 있다. 요컨대 참회는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빈다는 뜻이다.

불교의 계율을 규정한 율장(律藏)에 따르면 이 참회의 방법에는 세가지(三品)가 있다고 했다. 즉 상품참회는 온몸의 털구멍과 눈에서 피가 나오도록 잘못을 비는 것이고, 중품참회는 온몸에서 땀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품참회는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이라 했다.

그러나 이같은 참회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참회란 다시는 그같은 허물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마음의 다짐이어야 한다. 아무리 진실하게 잘못을 뉘우쳤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다시 그런 잘못을 저지른다면 진정으로 참회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중국의 유명한 육조혜능(六祖慧能)스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참회란 무엇인가. 지나간 허물을 뉘우치는 것이 참(懺)이다. 새로운 허물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것이 회(悔)다. 어리석은 사람은 다만 지나간 허물을 뉘우칠줄 알고 앞으로 있을 허물을 조심할줄 모른다. 아무리 뉘우쳐도 허물이 계속 생기는 것은 이런 까닭이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지 벌써 15년이 지났다. 수많은 사람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간 그 비극은 누구의 잘못인가. 그리고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지금 어떤 참회를 하고 있는가. 작은 잘못에도 몸둘바를 몰라해야 하거늘 엄청난 죄악을 자행하고도 참회의 눈물 한방울 없는 역사라면 그 비극은 되풀이될 수 밖에 없다. 광주의 진실을 밝히고 진정한 참회의 눈물을 흘리게 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홍 사 성
불교TV 제작국장

총동창회 정기총회 6월2일
18대 임원추대건의 등 논의

본교 총동창회(회장=황명수)는 제18차 정기총회를 오는 6월2일 오후7시 소피텔' 앰버새더호텔2층 그랜드볼룸에서 갖는다.

금번 정기총회에서의 안건은 지난 4월26일 제57차 정기이사회 결의사항인 △'94 회계년도 결산 △'95년도 사업계획보고 △18대 임원추대 건의 등이다.

경주 부총장 선거
박준학교수 입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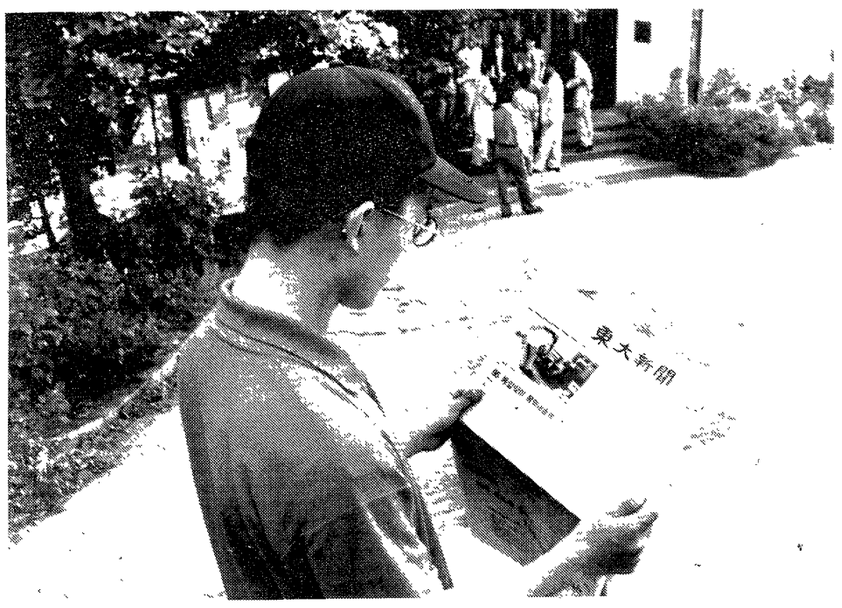
경주교수회(회장=황순구·한문학)는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제11대 부총장 선거 입후보자 등록기간의 거친후, 어제(23일) 박준학(행정학)교수 한명이 입후보한 것을 공고했다.

한편 이번 선거는 오늘31일 소강당(Ⅱ)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임기중교수 '국문학회…'참가

임기중(국문학)교수는 고려대에서 있는 제38회 국어국문학회 전국대회에서 오는 28일 11시에 '새로 발견된 광개토왕릉비 탁본해독의 제문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대학의 모습을
밝고 올바른 시각으로
보여주는 정도
바로 여기 동대신문에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대학생활 2년째
그속에서
나를 찾을 수 있는 기쁨을 안겨준
동대신문
올바른 대학생의 모습을 찾고자 하는
당신에게 동대신문을 보냅니다

이종섭〈사범대 국교과〉

이번주 금요일은 '캠퍼스 차 없는 날'입니다.

제37기 수습기자 모집

1. 모집부문 및 인원
   취재기자 ○명 사진기자 ○명 만화기자 ○명
2. 응시 자격 본교 1학년에 재학중인 모든분
3.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및 논술시험
   2차 개별면접 (1차 합격자에 한함)
4. 제출서류 입사원서 (본사 소정양식)1부
5. 원서 교부 및 접수 기간
   95년 5월 17일(수)~5월 31일 오후 5시까지
6. 원서 교부처
   서울캠퍼스학생회관 옥내지하 1층, 본사 총무부
   경주캠퍼스학생회관 2층 본사 편집부
7. 전형일
   1차전형
   서울캠퍼스 95년 5월 31일(수) 오후 6시
   학림관 J201
   경주캠퍼스 95년 5월 31일(수) 오후 6시
   원효관 A301
   2차전형
   1차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및 학생회관 앞 게시판에 공고

※.기자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소정의 활동비와 장학금 지급

동 대 신 문 사

열린 글터

개성있는 목소리를 가진 동대인을 찾습니다. 독자여러분의 생각이 담긴 글, 사진 만화를 보내주십시요.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문의는 (02)260-3491·2 (0561)770-2057
하이텔 (ID: dg press)

분리수거 인식부족으로 시행미흡

깨끗한 대학 만들기에 동참하길

95년 1월부터 실시된 쓰레기 종량제 이후 쓰레기가 귀하신 몸(?)이 되고 있다.

과거 종량제 실시 이전에는 본교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월간 약 1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출되었으나 종량제 실시 이후에는 월간 3백만원정도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쓰레기가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님을 실감케 하는 대목이다.

본교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약 3톤 정도로써 엄청난 양이다. 쓰레기의 종류는 김포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이 가능한 일반 쓰레기(휴지, 음식 찌꺼기)가 약 2톤 정도이며 책·걸상등 폐품, 고철류등이 약 0.5톤, 스치로폴, PVC등 특정 폐기물이 약 0.5톤 등으로 되어 있다. 이중에서 스치로폴, PVC, 컵라면 용기등은 특정폐기물로 분류되어 김포 쓰레기 매립지에 매립이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소각또한 불가능해 별도 수거처리해야 되므로 처리비용도 톤당(부피기준) 약 30만원의 고액이 들어가 처리에 골치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특정 폐기물은 일반 쓰레기와 함께 배출하거나 무단 소각할 경우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본교 모든 쓰레기 김포 매립지 반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쓰레기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코자 한다.

본교의 경우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 식당등 구내 업소는 지난 3월부터 분리수거함을 설치, 운영해 오고 있으며 지난 5월1일부터는 교정 및 일부 건물에 분리 수거함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학생들의 인식부족과 홍보가 잘 되지 않은 탓인지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본교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은 총 51명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은 1만5천명이나 된다. 아무리 청소를 열심히 해도 돌아서면 또 버려지는 쓰레기 앞에서 쓰레기와의 전쟁이라도 선포하고 싶은 심정이다.

이런 현실에서 깨끗한 대학을 만들기 위해 쓰레기를 줄이고 안버리는 운동에 다함께 동참토록 당부한다.

송 종 수
〈관리처 관재과〉

도난사고 빈발
동질·유대감 가져야

오월중순으로 접어들면서 신록의 푸르름이 교정가득하다. 정말로 산뜻하고 깨끗한 날씨가 찌든 마음까지 정화해 주는 것 같다.

덥지도 춥지도 않아서 학업에 열중하기에도 좋고, 자신의 일에 정렬을 바쳐 일하기도 좋은 계절이다.

그런데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교내도서관에서 자주 발생한다.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유치한 도난사고가 그것이다. 우리는 유치원에서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나쁜일이니 하지 말아야 한다'고 누구나 배웠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 중에는 유치원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는것 같다.

교내도서관에서의 도난사고는 시립, 국립도서관의 도난사고와는 사뭇 성격이 다르다. 사립, 도립도서관에서 개인간의 만남은 의미없는 타인과의 만남이다. 그러나 교내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간에는 넓게는 동국대학교학생으로서 서로 동질감과 유대감을 가지고 작게는 학과 동아리의 선·후배, 동료등으로 서로 알게 모르게 하나의 끈으로 묶여있는 공동체를 이루는 한가족이다.

이러한 공동체내에서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풍조가 남아 있다는 것이 더욱 안타깝게한다. 도서관에 있다 보면 학우들이 화장실이나 휴식을 위하여 자리를 잠깐 비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지갑, 카세트, 기타귀중품을 들고 나가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다. 이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자기옆에서 함께 공부하는 학우들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이…

김 필 중
〈이부대 법학과〉

이례적인 사과성명 발표에 분노
한·미 행정협정반드시 개정해야

19일 저녁 충무로 지하철역 3~4호선 환승구간에서 한국인 여자를 포함한 주한미군 11명이 시민 조정국씨를 500cc 맥주컵등으로 집단폭행하여 시민이 얼굴에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어 필동중대부속병원으로 실려갔다. 목적자들에 따르면 지하철안에서 소란을 피우고 한국여성을 희롱하던 미군들이 이를 말리던 시민을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고 한다. 이 상황에서 주위에 있던 시민들과 본교 학생들이 이를 말리려하자 이들에게 역시 주먹을 휘둘렀고 마침내 시민들에 의해 충무로역 지하파출소로 인계되었다.

이 과정에서 주위에 있던·의경들은 오히려 미군들을 놓아주려하여 많은 시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게 했다. 이후 중부경찰서로 인계하는 과정에서 올바른 조사를 위해 같이 가야 한다는 시민들과 학생들의 요구를 인정하고 미군들과 여자들은 경찰서로 호송하고 곧이어 따라간 시민들과 학생들을 목격자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채 전경들을 동원하여 경찰서로의 입장을 막는 사태적이고 비상식적인 작태를 연출해 또한번 그자리에 있던 20여명의 시민 학생의 분노를 자아냈다.

이 사건은 그자리에 있었던 시민과 학생들의 분노에 찬 항의와 밤샘농성으로 말미암아 사회여론화가 되었다. 만약 사건이 발생한 곳이 서울의 중심가이면 시민과 학생이 많았던 충무로가 아니었다면 사회여론화는 차치하고서라도 사건의 범죄행위 자체가 묻혀버릴수 있는 사건이었다. 다행히도 사회 여론화가 되었고 주한미군도 이례적으로 사과성명을 발표해 모든 국민들의 굴욕적인 한·미 행정협정개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에서 대립과 갈등의 시대가 가고 통일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조미회담의 구체적 성과는 평화협정의 체결로 이어져야 한다. 올해에는 7천만 겨레의 염원을 모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

김 용 구
〈문과대 사학과·총학생회 투쟁국장〉

임석대동제 형식적 변화에만 급급
참신한 기획 마련위해 노력필요

한판의 씻김굿이 끝났다.

캠퍼스 곳곳에 스며 들었던 대동제의 설레임과 아쉬움은 해갈의 단비와 함께 시원스럽게 씻겨 내려갔다.

예년과 달리 주막의 숫자를 줄인다, 녹야원을 중심무대로 문화공연을 펼친다, 백상연의 모습을 바꾼다… 등등의 많은 기대감을 가져다준 이번 대동제가 과연 얼마나 바뀌었는지 반문하지 않을수 없다.

광주 민중 항쟁의 기념주간에 열린 임석대동제는 형식적 변화에만 급급한 졸속적 기획과 내용성 상실의 문화행사라고 밖에 할 수 없을 것 같다.

"우리가 준비하는 대동제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번 대동제는 한마디로 변한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퇴보의 느낌마저 들게 되었다.

5월 18일이 어떠한 날인가? 광주에서 수천의 민중이 피를 뿌린 역사의 날이요, 투쟁의 도시요, 혁명의 영원한 고향이 아니던가. 그러함에도 추모집회하나 마련하지 않고, 순례단 모집도 없었을 뿐 아니라 선전작업조차도 없었던 대동제였다.

연일 누구다, 누가 온다 등등의 초청공연은 어느해보다 많았지만 초청강연회조차도 준비되지 않은 대동제 였던 것이다.

"청년이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이 있지 않는가. 주점에서는 찌든 술내음이, 녹야원에서는 환호와 괴성이 무성한 5월은 온방골은 나를, 모두를 눈물나게 만들었다.

5·18에 대해 대동제를 물고 늘어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찬찬히 둘러 보아도 다가오는 행사는 없었던 것이다. 다가오는 행사가 없는데 어떻게 다가간단 말인가?

어울어짐의 단결은 우리 삶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인 것이다. 예정된 행사는 매번 지연되고 아무런 사전 예고도 없이 무산되는 등 불철저한 준비가 곳곳에서 드러난 가운데 학우들은 이리로 저리로 그저 쏠려 다니기만 할 뿐이었다.

한마디로 이번 대동제는 매년 반복되는 병폐의 척결도, 새로이 시작한다는 준비도, 변화도 없는 퇴보의 대동제였을 뿐이라고 본다.

이제 대동제는 시류에 맞는 참신하고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기획과 철두철미한 준비, 그에따른 대동의 공간마련에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창 수
〈상경대 국경과〉

농활…농촌문제 직접고민할 계기
성실한 생활과 건강함 배워오길

"형! 농활얘기 좀 해 주세요"
"그래! 음 그러니까…"

나에게 농촌활동은 잊혀지지 않는 경험이다.

우선, 이런저런 활동을 하는 대학생인 나로서 개인적으로는 최상의 훈련이었다. 서로가 약속한 수십가지나 되는 생활수칙을 지켜가며 아침 5시면 일어나 서툴지만 하루종일 들에서 일을 하고 청장년반, 부녀반, 아동반 활동, 하루평가가 끝나면 12시, 1시가 되는 강행군이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선·후배들과 평소 못했던 이야기로 밤이 깊어 갔다.

이 속에서 땀의 의미를, 극기와 인내를 배우고, 흙 한줌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느끼며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함께 하는 공동 생활은 우리에게 서로를 아껴주고 챙겨주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근로활동과 분반활동은 농민들과 우리를 더욱 가깝게 해 주었다. 이 중에서도 어쩌면 가장 큰 성과는 책에서나 보던 농촌문제를 농민분들과 직접 이야기 나누는 속에서 더욱 가깝게 느끼며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해 주었다는 것이다.

멋모르던 1학년때, 꼭두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손등이 갈라지고 허리가 굽어지도록 열심히 일을 하는 농민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화를 내며 물어보던 기억이 난다.

이제 3학년이 되어 후배들 손을 이끌고 농활을 가려고 한다. 후배들이 농민들의 성실한 생활과 건강함을 배워오고 이땅에 대한, 그리고 사람에 대한 사랑을 많이 그끼고 왔으면 좋겠다.

이제 전국에 1백60만 청춘이 농활을 떠나려고 한다.

작년, 재작년 수입개방반대와 민족자주권 수호를 위한 처절한 싸움을 기억한다. 우리들의 투쟁으로 쟁취한 'WTO 이행특별법'의 조기실현과 농정개혁 7대과제의 실현, 그리고 이번 6월 자치제 선거의 승리를 다짐하며 충북제천으로 달려간다. 여러분 이번 봄에는 꼭 농활을 같이 갑시다.

원 진 욱
〈문과대 사학과〉

■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대동제 기사, 면나뉘어 지나치기 쉬워

지난호 동대신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기사는 물론 '95대동제 소식이다. 침체되었던 학교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대동제 소식이 신입생은 물론 모든 동국인들을 설레게 하는 것은 말할것도 없다. 이런 대동제 소식을 1면과 7면에 자세히 보도해 준것은 우리 학우들에게 많은 정보를 줄 수 있었다. 그러나, 한가지 아쉬운 것은 기사가 1면과 7면에 나누어져 있어 학우들이 자칫 그냥 지나치기가 쉬웠다는 것이다. 대동제 소식을 한면에 커다랗게 실었더라면 훨씬 더 돋보이지 않았을까 싶다.

또한 제1174호의 대학 평가제 연기기사에 맞추어 제1175호에서 그 문제와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실어준 것은 동대신문의 학교에 대한 관심을 나타낸 것이라 높이 평가한다. 동대신문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학교의 내실있는 발전을 도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7면에 사진으로 지적한 '틀렸어요'는 명진관을 영진관으로 잘못쓴 것에 대한 보도에만 그치지 말고 동대신문이 나서서 올바른 표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동대신문은 앞으로도 학내외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보도에 힘써주길 바란다.

이 효 원
〈불교대 불교학과〉

동/문/칼/럼

한가지에만 최선을 다하자

"참 희한한 일이네!"

칼럼 청탁이 왔다고 하자, 대학생 딸아이가 하는 말입니다. 내 딸이 이럴진데 이 칼럼을 읽을 후배 여러분들의 얼굴은 보지 않아도 알겠습니다.

칼럼이란 것은 대부분 유명한 분들이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유명(?)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단지 대학선배라는 이유만으로 쓴 칼럼을 읽을 여러분의 표정은 보지않아도 알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주제넘게 펜을 들었을까요?

그, 유명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되고 만 것은 대학생활의 실패 때문이었기에 그 후회감을 들려드림으로써, 후배 여러분들은 나의 전철을 밟지 않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대학생활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알긴 했었으나 그토록 중요했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은, 졸업한 다음이었습니다. 그 때를 놓치지 말아야겠더군요.

대학 4년이 애용하는 자에게는 긴 세월이나 소비하는 자에게는 순간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 잘될 것 같더군요.

폭넓게 대학생활을 보냄으로써 다가올 인생을 준비 한다는 것이었으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교문을 등지고 사회에 나와서 나의 대학 4년은 이것이었습니다…하고 내놓을 것은 빈껍데기 졸업장 뿐이었습니다.

인간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무한한 것 같으나, 한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이었습니다. 인간들에게 주어진 능력은 무한한 것 같으나 한 인간에게 주어진 능력은 유한이었습니다. 딱 한가지만 충고하겠습니다.

한 가지에만 미치십시오.

당구에 미치든지, 영화에 미치든지, 컴퓨터에 미치든지, 좌우간 어느 한가지를 선택해서 거기에 미쳐서 4년을 보내십시오. 그래서 전문가가 되십시오. 그러면 교문을 나선 후 사회를 향해서 크게 소리칠 수 있게 됩니다.

나의 4년은 이러했노라고.

그것이 인생의 발판이 되고 나아가 자연히 유명인사(?)도 되게 됩니다.

인생을 즐길 기회는 그 다음에 40년도 넘게 남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다음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따님에게 이런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또 원고청탁이야?"

김 용 운
〈(주)필성운대표이사·사66졸〉

동/악/광/장

목멱골

⊠축하합니다

■야간강좌 학술동아리 여명의 제6회 창립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 노민

■나의 소중한 친구 문현아! 스무번째 탄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 G·D·T

■제14회 응원대제전을 두손모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단장·부단장아! 수고했다. 제18기 아그들과 19기 아기코끼리도 모두 수고했다. 사랑해 너희들을…
— 백상을 사랑하는 한 학우가

■동윤이형 생익축하해. 열심히 살고 나중에 멋진 장기한판 둡시다.
— H·D

■성민이의 특전사착출(?)을 축하한다. 2년뒤에 보자.
— 검도부

⊠수고하셨습니다

■영문과 새벽바람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성적 거두세요.
— 세기말의 꼼

■검도부가 전국대회우승을 했습니다. 부원들 모두 수고했고, 춘계연맹전도 열심히 합시다.
— 대빵

■ 사람들 5월30일 공연준비하느라 힘들고 바쁘시죠. 진짜 멋진 공연위해 더욱 노력해요.

⊠알립니다

■제8회 금강초롱회전 — 내용: 자생식물분경및 분재전시 — 일시: 95년 5월23일 부터 25일까지 — 장소: 혜화관2층로비 — 많이 구경오세요.

⊠그리고…

■삶이 힘들지라도 그러하기에 더 살아 볼만한 것 같아요. 젊은 새 이웃임원단 여러분! 힘내시고 열심히 해보자구요.
— 젊새인

■극예술연구회 후배님들 Work — shop공연 잘하세요.
— 님

■빛고을 민초의 그 뜨거운 열정을 기억할수 있기를
— 여명

■박병철 멋쟁이!
— 연영과 일동

■찬식이형 드디어 불붙다.
— 사과대 중매쟁이

■4학년 졸업여행 잘 다녀오세요.
— 농경 '94 ○○○

■우리는 지금 거진으로 간다.
— Waste

■아, 대동제가 끝나면 5월이 다 지나가겠구나. 기말고사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군. 으~끔찍하다. 어서 기말고사 공부해야지!
— 기말고사를 걱정하는 이쁜이

■펜팔친구를 구해요! 군대에 있는 제 친구가 쓸쓸한가봐요. 그 친구 글도 잘쓰고 참 유쾌한 놈이거든요. 쓸쓸하신분 연락주세요.
— 015-908-3032

■사학과 동문체육대회 준비하신 94동기들을 비롯한 선·후배들 수고 많았구요 하루남은 대동제 즐겁게 보내세요.
— '94의 1004

■무역학과 일일호프 준비하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무사히 끝났겠죠? 모든 노고를 잊고 대동제를 재밌게! 행복하세요.
— 못가본 94

온방골

⊠축하합니다

■수미야, 생일을 축하해! Love 해!
— 94 국사 귀퓰

■산안공 '95의 성인식을 축하하며…
— M·K

■승훈아, 생일축하혀
— 겨레사랑 대빵

■5·28日 동국한의배구부(Attack— Line)가 O·B전을 합니다. 축하해 주세요.
— ??

■경임언니 생일 무진장 축하해요. 사랑을 완성하세요.
— 은숙, 유정's

■한문학과 야구부한맥이 동국기3위했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 전주장

■명민, 나영 늦었지만 너희들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용!
— 누굴까용!

■우혁이와 상륜이의 군입대를 축하합니다.
— Written by winter rain

⊠수고하셨습니다

■동국문학회·시선형들 동생들 낭송회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지협형.
— 14기

■Newsweek Coer Show준비하느라 회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했어요.
— 95

■동국음악회 가족 여러분 축제, 주막하느라 모두들 수고 했어요!
— 15기 포근이

■축제때 저희집 악세사리를 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규종, 대철, 경득, 범석 모두 수고했다. 주막 지키신 선배님, 동기들, 후배님들도
— 혜서니

■한문학과 주막에서 나는 축제의 즐거움을 만끽하였습니다. 선배, 후배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한문 94 현종

■경제학 선배님, 동기들 모두 수고했구, 주막시키신 분(?)도요.
— 95학번이

■대동제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 수교

■대동제때 고생하느라 모두모두 수고하셨어요.
— 대자원 봉사단

■영상 테마 전시회 무사히 끝내서 고맙습니다. 선배님들, 후배님들, 동기들 모두 수고했어요.
— 15기가

■불교 아동학과의 이쁜 학우여러분!! '95대동제 분식집 경영 하느라 정말 정말 수고 많았어요.
— 현주

■대동제때 주막에서 열심히 술 먹던 '혜숙이'수고했다.
— 수교 94가

일본 극우세력의 전쟁찬미론을 비판한다

전쟁찬미, 침략에 대한 향수와 저의의 표출

시사논단

김 창 수
사범대 역사교육과교수·한국근대사

일제의 질곡에서 해방되어 광복을 찾은 지 5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서고 있는 일본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 일본은 침략전쟁의 패전으로 말미암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침략에서 부득이 손을 뗄수 밖에 없었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침략에 대한 향수와 저의가 숨겨져 있는 것은 최근 일본 우익 지도자들의 움직임으로 보아 넉넉히 짐작이 간다.

일본이 해방 5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전쟁책임, 침략책임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책임을 지기 위한 과거 청산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같은 전쟁패전국이면서 끊임없는 사죄를 통해 과거를 청산하고자 노력한 독일의 경우와 비교해 볼때 너무나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요즈음 일본 국회에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회당 정부의 부전(不戰), 사죄 결의가 자민당의원들의 맹렬한 반대에 부딪쳐 무산될것 같은 정치적 격변을 겪고 있는 것은 일본의 극우보수화의 분위기를 잘 말해 주고 있다. 더우기 일본 우익정치지도자들은 기회 있을때마다 잇다라 망언(妄言)을 서슴치 않고 있다. 이를테면 일본은 한국을 통치하는 동안 좋은 일만 했으며 근대화에 도움을 주었다는 등 과거의 악랄한 식민지 지배에 대한 미화와 더불어 침략전쟁에 대한 합리화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망언은 요즈음에 와서 갑자기 돌출된 것은 결코 아니며 일본인의 의식속에 깊이 잠재해 있는 것이 기회 있을때마다 정치 지도자들의 입을 통해 발설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망언은 침략전쟁에 대한 찬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가해자로서의 도덕심과 책임마저 거부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전쟁찬미 또는 침략책임의 거부로 나타난 망언은 그들의 침략성의 표출로서 그것은 역사적 맥락속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즉 1923년 9월의 이른바 관동대진재때 "한국인이 우물에 독극물을 집어 넣었다"는 루머를 펴뜨려 한국인에 대한 대량학살로 유도한 것은 일본의 정치지도자들이었다. 이러한 일본인의 한국인에 대한 왜곡된 침략성은 70년이나 지난 오늘날에 와서 조금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재현되고 있다. 그것은 얼마전의 일본 관서지방지진때 참의원인 의원 나카무라(中村鋭一)가 한국인 방화설을 주장한 것은 관동대진재때의 재판을 보는듯한 느낌마저 든다.

비단 이러한 망언뿐이겠는가. 이러한 망언을 태연히 발설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발견하게 된다. 즉1953년의 한일회담때 "일본의 한국통치는 한국인에게 은혜를 베푼 점도 있다"고 한 일본측 대표 구보다의 이른바 '구보다 망언'은 물론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 통치를 합리화하기 위한 억설이지만 단순한 망언으로 돌리기에는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또한 역사의 흐름에 반하는 시대착오적이며 국수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는 일본인을 우리는 오늘날에 와서도 보수적 우익정치인에게서 그 예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1992년 6월 일본 자위대의 해외파견을 다룬 이른바 PKO법안 심의때 일본 자민당 간부 모리(森喜朗)의 발언은 관동대진재때의 넌센스한 상정(想定)을 뛰어넘어 우리를 아연실색케 한다. 즉 "요꼬하마의 수서관내에는 1천5백명 가량의 한국에서온 노동자가 있다. 이 사람들은 월남전에 참가한 바 있기 때문에 총쏘는 일에는 길들여져 있다. 한 사람의 리더가 있어서 1천명 정도만 모을 수 있다면 굉장한 군사행동이 가능한 위험성이 있다고 한다. 요즘 LA의 텔레비젼을 보고 있노라면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계 사람들은 언제나 간단히 총을 쏘고 있는데 이는 대체로 월남전에 체험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는 전문가의 견해이다."

위에서 인용한 글은 일본 아사히신문의 보도기사인데 이 내용을 많은 일본인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다면 이를 단순한 배외주의로 보기에는 문제가 심각하다. 이러한 발설은 너무나 엄청난 일본 군국주의의 망령이 부활한것 같은 느낌마저 든다. 이러한 일본 고위층의 망언에 대한 맥락은 1965년 제1차 한일회담때 "한국에 대한 지난날의 통치에 대하여 일본이 사죄하라는 말도 있으나 일본으로서는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본은 분명히 한국을 지배했다. 그러나 일본은 좋은 일을 하려고 했고 한국을 보다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일본의 노력은 결국 전쟁으로 좌절되고 말았지만 20년쯤 한국을 가지고 있었드라면 좋았을 것이다"고한 일본측 수석대표 다카스기의 발언은 구보다 망언보다도 우리를 더 분노케 하는 궤변이었다. 말할 나위도 없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 통치는 근대화라는 이름아래 은갖 수탈과 민족말살을 꾀한 것으로 제국주의 침략정책가운데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혹독한 것이었음을 역사가 증언하고 있다.

이와같이 거듭되는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무책임한 망언은 결과적으로 일본의 국수주의적 우익세력의 발호를 부채질하고 있다. 그리하여 최근에는 일본의 최고지도자인 무라야마 총리까지도 '한반도 분단 책임론'을 발설했다가 하루만에 번복한다든가 또는 일본의 우익보수정치인들이 전쟁책임론을 부정하고 나아가 전쟁찬미론의 집회를 위해 이른바 '아시아 공생의 제전'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다. 과연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망령이 되살아날 것인가를 우리는 주시하면서 이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을 스스로 자성해 본다.

사설

학·노강경책 그 저의는?

근간 노동계와 학원가에 대한 정부측의 강경책은 신공안 분위기를 조성, 6월에 있을 지자체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려는 의도로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고려대를 비롯한 부산지역 대학생 불법연행에 이은 5·18관련집회의 과잉폭력진압, 현대자동차노조와 한국통신노조에 대한 공권력 투입·노조원 강제연행등 학원·노동계에 대한 대대적인 강공은 정부측의 집권위기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여기에 언론의 편파보도 또한 가세하고 있다는 것이 대학가의 중론이다.

지난 15일 새벽에는 고려대생 7명과 부산지역 4개대생(부산대, 동아대, 부산여대, 부산여전)11명이 '국가보안법위반'이라는 죄목으로 강제연행됐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집행유예나 무혐의로 풀려나 의도적인 조작사건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또한 한총련 정태흥의장에게 별다른 사유없이 수배령이 내려진 것도 이에 한몫하고있다. 5·18민중항쟁을 기념,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한 서총련 집회에서도 경찰은 무차별 최루탄난사와 폭력진압으로 헌정부가 예전의 군사정권과 별다를게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한편 해고노동자분신에 따른 현대자동차노조의 파업사태는 실질적인 대화창구마련의 의지없는 회사측의 휴업조치 이후 경찰 병력투입, 노동자의 대거 연행으로 파국을 초래했다. 또한 합법적 절차로 진행됐던 한국통신노조의 행위도 불법으로 매도해 지난해 있었던 사내 마찰을 빌미로 노조간부 대량고소, 공권력을 투입한 것은 정부의 성급한 판단에 따른 과잉 진압이라는 여론이 높다. 한국통신노조는 파업에 들어간 상태도 아니었고 이렇다할 집단행동을 보인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통신이 노조간부에 대한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를 국민학교 3학년인 대상자의 아들에게 찾아가 전달한 사실은 비인간적인 행동으로 우리에게 당혹감을 주고 있다.

그리고 이형구노동부장관의 수뢰사건은 이러한 일련의 사태와 더불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상실시키고 있을 뿐아니라, 우리들의 분노마저 자아내고 있다. 특히 노조의 강경진압에 대한 책임과 이성적인 사태해결에 앞장서야 할 노동부장관이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은 부패한 정부의 한단면을 보여준다.

이번 사태에 대한 언론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 사태원인이나 해결방안보다도 정부와 회사측의 입장을 옹호하는 보도태도는 새삼스러울 것이 없으나 언론의 본 사명을 무시하는 것은 바판받아야 마땅하다. 노-노간의 갈등으로 부각, 운동적전략및 주도권쟁탈과 무관하지 않다는 보도가 천편일률적이다. 또한 엔고로 인한 호황을 마치 노조의 분규가 망치고 있는 듯한 보도는 노동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공정치 못한 자세이다.

이제 더 이상 폭력이 난무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지 않는다. 지자체선거에 대비한 정부측의 공안분위기조성은 자제되어야 한다.

◇공간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자물쇠 채워진 방 허다…효율적 활용 아쉬워

이기주의 아닌 합리적 대안 마련해야

동국관 M동 1층에 밀집되어 있는 공간이 제대로 이용되고 있지 못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30여개의 방이 늘어서 있는 동국관 M동 1층은 학생회실뿐만 아니라 학과연구실·세미나실 등이 빽빽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과대, 경상대, 법대, 야간강좌의 각 학과가 공간을 나눠쓰고 있다. 30개의 방은 행정학과1, 사회학과2, 정치외교학과2, 경제학과2, 법학과3, 무역학과2, 경찰행정학과3, 회계학과2, 경영학과2, 사과대PC실1, 경상대3, 야대7개 등으로 사용주체가 정해져 있다. 2개이상의 공간을 쓰고 있는 학과는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공부방으로 사용하고 있다.

경상대학생회가 사용하는 3개의 공간은 얼마전까지만해도 경상대 여학생회실, 경상대 세미나실, 경상대 대의원실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대의원실을 제외하고 여학생회와 세미나실을 합쳐 경상계 도서관을 구상중이다.

야대가 사용하는 7개의 공간은 경제·영문·회계·경영·무역학과 세미나실과 학술동아리 '여명' 문예패방으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각각의 주체에 의해 쓰여지고 있는 방이 1백%효율적으로 활용되는지에 대해선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활발한 토론과 회의를 통해 학생회활동을 펼칠 수 있는 학생회실이 아닌 쓰레기와 기타와 노래소리가 범람(?)하는 곳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또한 '연구실'이란 간판을 단 곳은 전체학과 학생이 아닌 일부 고정학생을 위한 개인 독서실로 쓰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바로 주인의식의 부재와 학교 지원정책 미약의 결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한 동국관 1층 상황에 대해 어느 누가 '우리 바꿔봅시다'고 나서기란 쉽지 않다. 아무리 윗층에서 학회실 없다며 호소하고 농성해도 '안됐다. 그래도 어쩔수 없지'라며 슬며시 외면하는 상황이다. 언제부터 이 방을 쓰게됐냐는 질문엔 한결같이 "잘 모르겠다. 그러나 여기는 우리 선배들이 피와 땀으로 마련한 곳이다"는 답을 한다.

동국관 M동 1층 곳곳에 자물쇠가 굳게 채워져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문패마저 없는 곳도 있다. 좁은 중앙통로는 나와 있는 책상과 의자, 각종 집기 및 쓰레기가 어두침침한 조명을 받아 '슬럼가'를 연상시킨다.

현재 광고학과, 중문학과, 신방과 등 신설학과는 학회실 마련을 요구하며 4층 복도를 학회실로 쓰고 있다. 황인구(영문3) 야간강좌총학생회장은 "동국관 1층 공간을 재배치하면 물론 신설학과 학생회실은 마련될 수 있다. 그러나 학회실을 마련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며 "지금까지 보여온 학교행정의 일방적인 결과가 학생들간의 주인의식 부재결과를 초래한 것"이라 말하면서 공간배치나 올바른 학생회실 건설을위해 환풍·조명 시설 등의 환경정비와 학사행정을 제대로 펼쳐야겠다고 주장했다.

한 학과에서 제한된 공간을 두세개씩 쓴다는 것은 하나도 없어 쩔쩔매는 상황을 봤을땐 바람직하지 않다. 일부 몇몇 학생을 위한 연구실이 아닌 전체 학생을 위한 '과사무실'등으로 전환되는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 상황을 어느 누구도 쉽게 탓할수 없는 것 또한 어쩔수 없다.

공간문제는 일단 학술문화센터가 완공되는 내년 2월을 전후해서 본격적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이기주의'를 벗어난 합리적이고 정당한 토론과 정책으로 공간문제가 해결되길 모두가 바랄것이다.

(곽주영 기자)

동국만평

이 영 일

섹션신문, 정보신문 중앙일보를 읽어보셨습니까?
섹션마다 깊고 다양한 정보가 가득가득 합니다.
무한경쟁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이제, 중앙일보로 정보를 읽으십시오. 미래를 읽으십시오.

월요일엔 자동차와 레포츠 섹션, 화요일엔 뉴미디어 섹션……요일마다 새로운 섹션으로 다양한 정보를 드립니다.
기자의 수준이 다르면 정보의 수준도 다릅니다. 모든 기자를 전문기자화하여 하나를 전해도 알기쉽게, 제대로 된 정보를 드립니다.

中央日報

수박 겉핥기식 기사는 쓰지 않습니다. 가려진 부분까지 제대로 파악한, 그래서 깊이가 있는 정보를 드립니다
정보도 세계화되고, 독자도 세계화됩니다 국내 신문 중 가장 많은 수의 특파원들이 발로 뛰면서 취재한 생생한 정보를 드립니다.

미국 남가주동문회를 찾아서

미국에서 최초의 동문회결성—동대인 자부심 키워

포교 개인사업등 여러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전개

본교 미국 남가주동문회(회장=김경재·농 69졸)가 총동창회장배 쟁탈 골프대회를 겸한 춘계정기 모임을 지난 7일 미국 LA시의 위티어 내로우 골프장에서 가졌다.

이번에는 특별히 김영환(정외 67졸)총동창회 사무국장, 하창호(농 69졸)충남대전지부 대표, 본교교수와 재학생대표로 김인제(경제학)교수, 김소영 본사편집장등 총4명이 초청되었다. 이에 본지는 편집장의 현지 취재를 통해 남가주 동문회 활동과 동문의 현황을 소개한다. 〈편집자〉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에서 본교 동문회를 갖는다는 소식은 동문회가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매우 놀랍고 반가운 일이 아닐수 없다.

흔히 말하듯 "동대의 특징은 의리와 협동심이 강하고 선후배간의 끈끈한 정이 있다"는 얘기를 미국 남가주 동문회에서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LA에는 동문이 약 3백여명 되는데 절반가량이 적극적으로 동문회에 참석함으로써 미국에서도 동대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생활하는 동문은 1천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동문회결성은 본교가 최초이다. 70년대초 결성당시 대한항공 미주지점장이었던 최응태(영문 47입학)동문과 초대동문회장을 역임한 김병식(경제 60졸)동문등이 창단멤버라고 할 수 있다.

남가주 동문회는 임원선출, 결산 및 사업보고를 하는 정기총회를 제외하고 1년에 4차례의 정기모임을 갖는다. 봄가을에는 총장·총동창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하고 여름에는 가족들을 동반한 야유회, 겨울에는 망년회를 통해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한다. 이외에도 회원의 각종 경조사뿐아니라 한국에서 동문이 방문하면 적극적으로 환영행사도 마련한다. 또한 처음 이민 온 동문들을 돕기도 하는데 이는 동문회차원에서 더욱 활성화하여 기본적으로 미국생활에 도움을 줄 계획이며 앞으로 장학사업도 더 활발히 추진할 목표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남가주동문회가 발전하게 된 것은 이민휘동문의 자문과 더불어 현재 동문회장직을 맡고 있는 김경재동문의 역할이 크다고 회원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아 칭찬한다. 동문회가 이전까지는 길닦고 기틀을 만드는 작업을 했다면 김회장 취임부터 본궤도에 오르고 더욱 활발해졌다는 평가이다. 이성화(경제64졸)전 동문회장은 "이런 것이 동문회라는 전형을 창출하고 동문회가 왜 좋은지를 회원들에게 인식시켰다"고 김경재회장을 말한다. 한예로 5번의 행사가 있을때 그전까지 2번정도 연락이 되었다면 현재는 최소한 4번은 연락이 온다고.

2년째 회장직에 재임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본인은 한 게 없다고 말하는 김회장은 "학창시절 기분으로 서로 상부상조하고 있다"며 "선배에 대한 존경과 후배에 대한 사랑은 타학교와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한다. 본명이 김경숙인 김회장은 이름때문에 더러 오해를 받기도 했는데 몇해전에는 졸업증명서를 발급한 일도 있다고 한다. 미국생활 15년째인 김동문은 "처음 10년간은 고생이 심했다"고 털어놓는다. 지금은 우리의 남대문시장과 흡사한 '자바'라는 도매시장에서 '조이패션'을 운영하고 있으며 점포가 3군데인 그의 가게옷들은 직접 공장에서 만든다.

김경재회장외에도 올해 동문회 임원을 보면 부회장에 배문혁(상67졸)·김종환(상69졸)·이성하(경영대학원79졸) 동문, 총무에 한흥우(경영81졸)동문, 골프부장에 박태원동문이 있으며 22명의 이사가 있다. 자문역할의 고문에는 김기성(정치 52졸)·이민휘(정치 56졸)·김도안(불교철 67졸)·김영주(경제 49입학)·이의섭(법61졸)동문이 맡고 있다.

부회장 배문혁동문은 산디아고에서 한국인으로는 가장 큰 마켓을 경영하고 있으며 이성하 동문은 가방을 생산판매하고 김종환동문은 개인사업을 하고 있다.

김기성동문과 더불어 한인회장을 역임한 이민휘동문은 80년대 재미 대한체육회장을 지내기도 했고 현재 후배들의 존경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안 스님은 관음사주지로 기자가 방문한때에는 '석가탄신일'행사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도안스님외에도 정혜사 주지인 정창문(행정대학원67졸) 법왕사주지인 현린스님, 재학당시 총학생회장을 했고 현재 미국 한국 불교방송이사장 이정산스님이 본교출신으로서 포교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70년대초 LA영사였던 임재태(법56졸) 동문, 코리아 타운 교민회장인 전수웅(정외 67졸)동문, 미주 전봉제협회 회장이었던 오영환(경영 70졸)동문, 런던올림픽 역도동메달리스트 고종구(정치 56졸) 동문이 있으며 동문회 이사인 이성화동문은 재학시절에 산악부 스키부 창설멤버로 올림픽스키선수였으며 현재 한겨레회 회장직을 맡고있다.

이번 동문회에는 미시건주에서 사업하는 이태근(정치58졸)동문이 멀리서 참석하기도 했다. 60년대초 본교교수로 재직하기도 했던 이동문은 본교 레슬링부를 창설, 장창선 선수를 배출한바 있다. 다른 동문들도 말한바 있지만 이태근 동문은 '누구든지 공부하겠다는 후배는 도와주겠다'고 말해 후배에 대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문들이 미국에 터를 잡은 지 흔히 1세대라고 말하는 30년, 거의 뿌리를 내려간다고 할 수 있다. 한 동문은 얼마전 '동대생 격렬 화염병 시위'라는 기사를 읽었다고 안타까워 했다. 역시 LA에서도 라디오에서는 한국언론의 대구가스폭발참사의 축소 보도를 꼬집기도 하고 '모래시계'의 음악이 여전히 인기를 끌기도 하는 등 교포들의 본국에 대한 것만큼이나 모교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이민휘동문은 "동대출신이라는 사실은 영원히 변할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경재회장도 "선배가 앞에서 이끌고 후배는 믿고 따르는 동대의 전통이 이어지길 바란다"며 "모교와 동문회간의 연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총동창회 김영환사무국장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지부 동문회의 활발한 활동은 동창회원간의 결속은 물론 모교의 위상을 높이는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도 동대인이라는 인연으로 인해 선후배간의 정이 돈독해지고 동대인이라는 자부심으로 남가주 동문회는 물론 본교 동문회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김 소 영
〈본사 편집장〉

◇본교 미국남가주 동문회는 1백50명 가량의 동문으로 구성, '동대인'이라는 자부심과 결속력이 대단하다. 원안의 사진은 김경재 동문회장.

사회단신

노동쟁의와 공권력

지난 19일 현대자동차에 공권력이 투입된데 이어 한국통신 노조 간부 일제검거등 노동쟁의에 공권력 투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측은 '울산만작전'이라고 명명한 이번 병력투입을 위해 19일 오전 2시경 검찰로부터 분신대책위관계자 등 13명에 대해 긴급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며 병력을 정문 봉쇄조, 철야농성연행조, 단위공장농성 검거조 등 3개조로 편성 2천여명의 병력을 현대자동차 회사내로 일제히 투입했다.회사로 진입한 경찰병력은 본관앞 잔디밭에 설치된 30여개의 농성텐트를 겹겹이 포위했다.

현대자동차에 경찰병력 투입으로 인해 현대그룹노조총연맹(이하 현총련) 산하단위노조들도 공동대응키로 했다.

또한 현총련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대대적인 연대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한편 지난 22일 한국통신 노조 간부 일제검거에 대해 노조측은 "25일 정오까지는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단체 행동을 하지 않을 방침이나 정부의 노조에 대한 탄압이 계속될 경우 25일부터 준법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회사측이 고소·고발한 64명 중 간부 44명에 대해 A급 15명, B급 8명등으로 분류하여 검거에 주력하고있다.

이처럼 노동쟁의에 공권력 투입이 증가하면서 노조측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사회부〉

'교수 공정임용을 위한 모임' 통해본 바람직한 임용책은?

금전거래·친인척 학연에 의한 정실인사 없애야

학과의견 존중·채용결과공고, 조선대 인천대 홍익대등 공정의지 높아

최근 대학종합평가 인정제 대비를 앞두고 각 대학의 자구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신규교수의 채용이 급격하게 늘고있다. '교수 공정임용을 위한 모임'에서 밝힌 사례들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교수임용책은 무엇인가 살펴본다.

〈편집자〉

지난 20일 서울대 교수회관에서는 '교수 공정임용을 위한 모임' 창립 총회가 70여개 대학 2백여명의 교수들이 모인 가운데 있었다. 이 모임에서 밝힌 교수임용과 관련한 비리 유형을 살펴보면 금전 거래, 친인척 관계나 학연 지연에 의한 정실인사, 유력인사의 청탁, 무능한 현직교수들의 보신책에 의한 우수 인력 배제 등이다. 이는 일부대학에서 이미 알려진 비밀로서 아직도 대학교수임용을 둘러싼 잡음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학종합평가 인정제로 각 대학들이 앞다투어 많은 수의 교수를 초빙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수 공정임용을 위한 모임'은 신규교수 임용비리의 구체적인 사례로 "서울 모대학음대는 교수 및 강사 임용과정에서 금품거래가 이루어져 왔으며 어떤 사립대학에서는 심사 순위에 들지 못하자 총장이 재심사를 지시 임용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라고 밝히고 심지어 "모 여대에서는 학장이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며느리를 교수로 채용하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지방 모대학에서는 교수들이 교과과정을 변경해 가면서 특정 제자를 채용하고 또 다른 대학에서는 총장이 교수 모임에서 '학교 사정상 교수 몇 자리는 청탁받은 몇 사람으로 채울 수밖에 없다'며 전공과 채용 분야가 다른 사람을 면접과정에서 순위를 바꿔 임용했으며 모 신학대에서는 특채 조건을 갖추지도 않은 후보에 대해 이사장과 학장이 직접 나서 대우전임강사로 편법채용한뒤 나중에 정식 발령했다"라고이 모임은 밝히고 있다.

이런 공정성 시비 속에 몇몇 대학들은 임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 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조선대, 인천대, 홍익대 등은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대학에서는 학과에서 추천한 1순위자가 거의 예외 없이 임용돼 학과의 의견이 최대한 존중되고 있다. 또한 채용 결과를 공고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조선대는 연구실적 심사위원회와 학위논문 심사위원회가 교수 임용 심사를 맡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항으로는 학위논문 심사위원 4명중 1명 이상은 반드시 타학교 교원이 됨으로써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학연시비를 없애는 제도적 장치가 되고 있으며 최고 득점자 3인을 대상으로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최종 공개강의 심사를 실시한다. 또한 채용 이후 일간지를 통해 결과를 공고함으로써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과시하고 있다.

지난해 시립화된 인천대는 채용 결과를 시정 소식지에 공고하는 것은 물론 최종 임용자들의 최종점수까지 자세히 공개하고 있다.

홍익대는 임용절차의 합리화를 꾀하고 있으며 연구업적 심사시 주관이 개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자의 이름 대신 번호만을 표기한 채 심사를 진행한다.

그러나 시립화된 인천대나 실질적인 재단이 없는 조선대, 홍익대는 상대적으로 특별한 외압이 작용할 수 없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훌륭한 교수진을 통해 대학의 이미지를 높이겠다는 학내 구성원들의 의지가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이 이들 대학의 특징이다.

본교도 지난 22일부터 95학년도 2학기 신규교수 초빙을 위한 원서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2학기 초빙은 대학 평가를 대비한 때문인지 예년보다 2배이상 많은 교수를 초빙한다. 이번 임용 과정은 그 어느때보다 공정한 심사가 앞서야 할 것이고 심사의 내용 공개와 공개 강의를 통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교수 채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부〉

동악로

피의 오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월의 싸움은'

지난 5월 18일 광주의 아침은 걸쭉한 봄이었다.

한창 묘지 성역화 작업으로 분주한 포장길을 거슬러 가면 '5월의 영령들 고이 잠드소서'라는 검은색 플래카드가 찾는 이들을 맞이한다.

입구부터 정열된 1백여점의 5.18당시 생생한 그림들에서부터 많은 참배객들이 눈에 띈다.

묘역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어머니들의 통곡소리, 유리액자로 된 사진앞에 꽃한다발 놓여있는행방불명사자분향소 그리고 검은띠 두른 수많은 묘비들을 앞에두고 오전 10시가 가까워오자 한차례 마이크 시험방송후 추모식이 거행되었다.

"매년 피의 오월이면 빛고을 광주는 몸부림 친다. 그것을 다만 몇차례 추모행사로 끝낼수 없다. 더구나 올해는 항쟁 책임자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나는 해이다." 조미오 위원장은 이부 분에서 힘을 준다.

오월 빛고을의 몸부림…

열다섯해가 지날동안 처리못한 앙금으로 남고…

"그 앙금의 시간동안 소득도 없이 언론조작이란 반창고 하나에 그때에 상처는 곪아터져 피딱지가 되었다"고 통곡하며 닳도록 묘비를 쓰다듬는 광주의 어머니들은 흐느끼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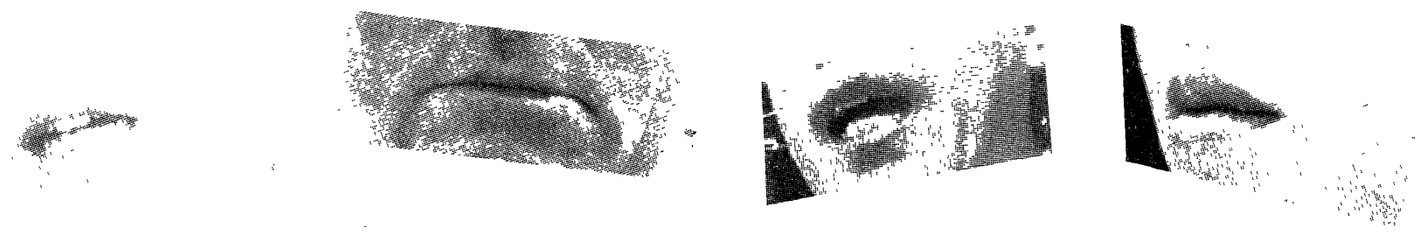
"이제 정부는 아무런 힘도 안쓰고 그까짓 몇푼보상에, 정치적 계산이 맞물린 법집행 조작에, 악연히 흐르는 시간에 역사는 잊혀질거라 착각하는건가" 참배객들은 공소시효 마지막 해의 이날을 그렇게 한탄한다.

'공소시효' 이 법률용어가 사전에 어떻게 정의되어 마침표가 찍혔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용어가 이 나라에서는 제대로 된 법치국가의 제도로 행해지지 않을 것이라 통감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아직 '공소시효 철폐', '기소관철', '진상규명'이 적힌 카드를 들고 외치는 광주학생들…… '반인륜적 행위에도 공소시효가 적용되어야 하는가'에 힘을 주며 박수치는 시민들은 분명 그곳에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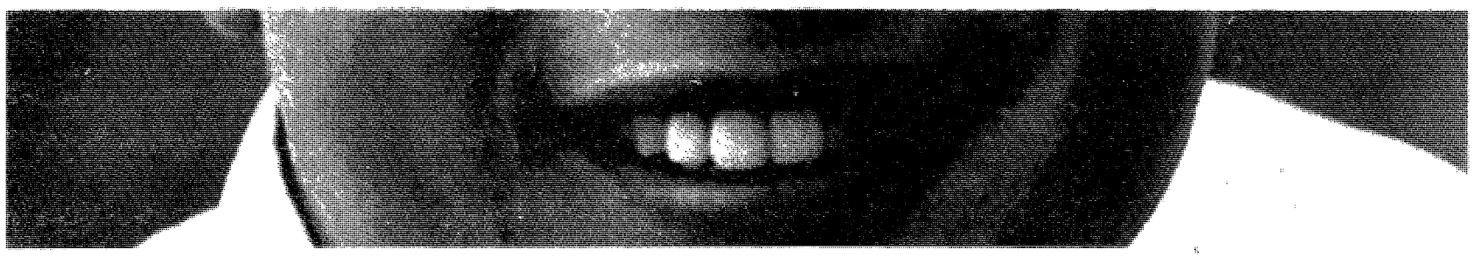
〈신형섭 기자〉

□공정방송 실천 공동기획광고□



'아'와 '어'는 다르다?

제4의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는 언론, 언론매체들이 어떻게 보도하느냐는 비단 선거뿐 아니라 한국현대사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언론이 '아'하면 '아'가 되고 '어'하면 '어'가 될 정도로…
지자제무용론, 시기상조론, 부작용론 등은 지난 30년간 언론이 꾸준히 외쳐온 '어'입니다.
온국민의 피와 땀의 산물인 이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조차 이를 좌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몫은 무슨일이 있어도 '아'를 '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와 '어'는 다르니까요.



불공정 선거보도 특징 및 사례

1)당선가능성과 우열의 차를 중심으로 한 '경마식 보도'
—지역별로 공천여부를 당선여부로 결부시키는 등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보도

2)후보자간의 지역, 정파간 대결구도 부각을 통한 의식 전쟁상황 연출

3)상대후보에 대한 추문폭로 및 흑색선전의 여과없는 확대보도
—'93대선시 김대중 후보 색깔론 부각 등

4)정책대결 보도 및 정치쟁점 부각의 의도적 회피와 축소
—'대통령과 서울시통령의 대결구도 불가피'등 지자제와 선거를 부작용 강조, 회화화하는 반면 지자제의 필요성과 가치 등은 축소, 외면

5)특정후보의 지지도 증가를 '바람몰이'로 매도하는 추관적 인상보도
—'호남의 황색바람', '충청권 JP바람'등 배경과 원인분석을 외면한 현상의 강조

6)비여당 후보들에 대한 보도의 양적 불공평 및 비우호적 보도

7)여당지지 유도를 위한 특정 사건의 확대 또는 축소보도
—'87대선시 '노사정의', 'KAL기 폭파' 확대보도, '92총선시 '안기부 흑색선전'축소보도, '93대선시 '부산복집사건'축소왜곡, 최근 '대구폭발참사'축소은폐등

8)가십성 미확인 추측보도의 남발
—'金心의 향배…', 'YS의 의중이 관건…'등등의 최고권력자 의중추측 보도. '동교동계 지원후보의 패배는 전남민의 金心 離反'등등의 의도적 폄하보도.

〈방송개혁국민회의 참여단체〉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CBS 노동조합/KBS 계열사노동조합연합회/한국기자협회/EBS 노동조합/한국방송기술인 연합회/한국방송촬영인연합회/한국TV카메라기자회/한국방송카메라맨연합회/한국아나운서연합회/KBS경영사원협회/KBS지원협의회/방송 바로세우기/대전시민위원회/KBS노동조합/MBC 노동조합연합/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광주 민주언론운동협의회 NCC언론위원회/전국YMCA연맹/민주언론운동협의회/불교언론대책위원회/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단체협의회/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한국사회언론연구회/민변 언론위원회/바른언론을 위한 시민연합/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부산민주언론운동협의회/ 한국방송작가협회/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전노협(산하 13개 지역노조협의회)/대우그룹노조협의회/현대그룹노조협의회/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전국전문기술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민주출판언론노조협의회/대학노동조합연맹/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전국지역의료보험노조총연합/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방송개혁국민회의 선거방송대책본부

동대신문

제33회 전국 고교문학콩쿠르

1995년 5월24일 (수요일) 제 1176 호 특 집 5

본사주최 서른 세번째 고교생 문학의 향연

동국문학 전통의 찬란한 계승작업

◇입선자 명단

시
장원:'새벽' 양윤의〈숭의여고 3년〉
우수1석:'새벽' 김태우〈오산고3년〉
우수2석:'새벽' 김선미〈강릉여고 2년〉
가작1석:'꽃이지면' 최현미〈영신고 3년〉
가작2석:'꽃이지면' 김화영〈안산강서고 1년〉
가작3석:'꽃이지면' 이지영〈서초고 3년〉

수필
장원:'곤지암, 새벽 그 언니와 이슬' 정리태〈혜성여고 2년〉
우수1석:'빈대떡과 피자' 나은미〈영신고 3년〉
우수2석:'새벽이슬' 최은정〈부안여고 2년〉
가작1석:'새벽 이슬' 민혜란〈부평여고 2년〉
가작2석:'그의 무지개 빛' 임지현〈철원여고 3년〉
가작2석:'빈대떡과 피자' 김태형〈마포고 3년〉

소설
우수1석:'배신' 홍연주〈안양예고 3년〉
가작1석:'배신' 조혜린〈용화여고 3년〉
가작2석:'북소리' 전유미〈안양예고 3년〉

◇심사위원
시: 홍신선〈시인·수원대 국문과교수〉
최순열〈시인·사범대 국교과 교수〉
수필: 홍기삼〈평론가·문과대 국문과 교수〉
이정순〈문과대 독문과 교수〉
소설: 한용환〈소설가·사범대 국교과 교수〉
김용철〈소설가·법인사무처 사업부장〉

시장원

양 윤 의
〈숭의여고 3년〉

새벽

어둠이 지나면
나는 당신 앞에 선 한그루
나무이고 싶다.
내 전생애를 푸르게 푸르게
흔들어 보이고도 싶고
그 푸르름이 아주 깊어졌을 때쯤이면
이 세상 모든 새들을 불러모아
열린 새벽 하늘을 바라보고 싶다
어둠 그치고

모든 것들이 이른 봄바람처럼
흰 새의 날개들이 나무를 떠나듯
이 어둠이 다하고 나면,
당신의 앞마당에 잎을 피웠던
이름 모를 잎들이
이슬 얹혀 팽팽해진 거미줄 위로
물든 몸뚱아리 떨궈내릴때

나 당신 곁에 자리를 하고
내 온 존재의 꽃물을 뿌리로 하여
당신 곁에 가지 뻗는 나무이고 싶다.

이 어둠이 그치고 나면.

시우수1석

김 태 우
〈오산고 3년〉

새벽

1
별들은 운동회가 끝난 후 운동장에
널브러진 깃발들처럼 일그러진 하품을 하고
나도 이젠 오십년의 밤샘에 지쳐,
꾸벅꾸벅 졸다가 꿈을 꾸어버린 잠에서 깨어나
몸서리치듯, 두 눈 부릅뜨며 나무를 심는다.

우표를 수집하듯 산을 수집한다.
바다를 수집한다. 치악, 금강, 백두에라 모르겠다.
산맥을 수집한다.

금강산은 정철의 관동별곡을 읽고서는 알 수 없는 법
횃불을 밝혀 새벽 이슬 머금고
임진강을 건너서는 보아야겠네
북한 쌀밥도 먹어보고
사투리로 뒤섞인 아리랑도 불러야겠네
대동제를 올리듯 새벽을 갈라
어울림의 하나를 낳아야겠네

2
새벽은 모든 것을 잉태하고
태어나게 한다지만
숨바꼭질 하는 듯
네가 어디에 있는 줄 알면서도
너의 이름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선뜻 부르지 못함을 용서해라
밤마다 보채는 아이를 재우고 나면
아침을 부름을 용서해라

아이가 자라 제 아비를 찾을 때
그때는 너를 찾아 벅찬 감동으로
어루만지고 두팔로 안아 만날테니
새벽을 기다리자

어차피 만나야 할 사람
꼭 보아야 할 사람
첫날밤
새벽의 약속이나 잊지를 말자.

심사평

창 밖으로 아카시아꽃이 속절없이 비에 젖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 다 여물지 않은 시의 재주를 다해 생각과 말을 애써 가다듬은 작품들을 심사하는 일이 어쩌 흐뭇하지 않으랴. 요즘 고교생들이 어디 시 한 줄이라도 여유롭게 읽고 쓰고 할 여지가 있는가. 그런데도 나름대로 시를 쓰고 다듬는 그 정성들이 대견스럽기만 하다.

하지만 시를 엮는 마음들은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것 같다. 그러다보니 상상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다. 주어진 시제를 해석하려고 덤비니 상투적인 소리만 되지 않는다. 그 시제에 자기의 눈길을 던져 부딪쳐 되돌아 오는 자기 느낌과 생각을 자기 호흡에 고스란히 실으면 된다. 억지로 생각을 쥐어짜고 가락을 엮으려니 생경한 억지가 드러난다. 평소때 풍부한 생각과 예민한 느낌을 훈련해 두었다면 자연스레 시제로부터 환기되는 정서가 있기 마련이다. 그런 점이 두드러져 나타난 작품이 많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시적 형상화에 미숙하였으며, 무언가 그럴싸한 의미를 담아야 하겠다는 욕심때문에 오히려 경직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양윤의(숭의여고·3년)의 '새벽'은 차분한 톤과 시적 형상화의 묘를 얻고 있었으며, 김태우(오산고·3년)의 '새벽'은 굵은 톤과 유창한 호흡, 역사적 상상력이 돋보였다. 이둘을 우선적으로 첫머리에 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밖에 입선에 든 작품들도 각기 제 기량을 한 가닥씩 지니고 있다.

홍신선·최순열

21세기를 생각하는 대학생들의 '토론마당'

한라공조가 마련한 '토론마당'에 의견을 성심껏 개진해주신 대학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라공조는 우수인고용모작을 중심으로
이 '토론마당'을 통해 대학생 여러분과 함께
토론과 공감의 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원고를 응모해 주신 분들과 지난 5월 17일
롯데호텔에서 노론마당 초청 대학생 간담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시상식에 이은 만찬 내내 활발하게 노의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학과 기업의 직접적 교감을 갖는 유익한 행사로
계속 발전시켜 나아갈 계획이고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다시한번 성원에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패기있고
창조적인 젊은 대학생 여러분들의 신선한 의견을
기대합니다

HCC 한라공조주식회사
한라공조는 국내 최대자동차 부품업체인 만도기계와
미국 FORD자동차와의 합작회사로서,1986년 설립이래
자동차용 에어컨, 라디에터 및 컴프레서 등 공조제품을
생산하여 세계10대 공조회사로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준비하며 …

다양성과 독자성, 지방화와 세계화가 공존하는 21세기.
다가오는 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간상은 무엇일까?

국내적으로는 지방자치제가 시작되고, 국외적으로는 세계의 중심이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옮겨지는 변화의 시대는 무엇보다 다양성과 창의성을 요구한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전문성 강화만을 강조하며, 자신의 전공분야 밖으로 눈을 돌리면 맹인이 되고마는 인재들을 키워냈다.
세부 분야의 첨단화라는 면에서는 높이 평가되지만, 전문지식과 기술이 실용성을 가질만큼 폭넓게 응용되었는가라는 질문에는 다소 회의적이다.
전문지식이나 기술은 누구를 위하여 이용될 수 있는가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된다.
이를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 바로 전능력적 인간상으로 지식과 기술간의 다양한 연관성을 인식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이다.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인재 양성의 필요성이 절실하며 교육의 중요성이 남다르다.
우리 교육의 초점은 전인격적 인간성을 실현하는데 맞추어져야 한다.
국제 경쟁력 강화에 앞서 지구공동체의 평화와 공존에 관심을 갖는 인간성과 도덕성을 회복하는 일이 중요하다

평화와 정당성을 깨닫고 인류의 안전, 독립, 인간 본연의 모습을 지킬 수 있도록 평화를 추구하는 인간상이 바로 21세기를 이끌어 나가는 인간상이다.
이러한 도덕적 신념과 철학 속에서만이 특정 민족이나 국가를 초월하여 세계인류에 공헌하는 가치, 문화, 산업,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4년 임경화

漢拏 HALLA 한라중공업 · 한라중공업 만도기계 · 한라건설 · 한라시멘트 · 한라공초 한라자원 · 한라해운 한라콘크리트 한라창업투자 · 캄코 · 마이스터 · 한라마이티정보통신 한라제지 배달학원

Halla Group

본사주최

제33회 전국 고교문학콩쿠르 입선작

수필 장원

곤지암 새벽 그 언니와 이슬

그 작고도 작은 수많은 이슬방울들
그것은 새벽의 신비였다
밤 사이 별이 흘린 눈물인가?

정 리 태
〈혜성여고 2년〉

나는 세상의 첫 풍경을 좋아한다. 알에서 막 깨어나오는 어린새 봉우리를 이제 막 터트리는 꽃, 5월, 지금같은 때에 저렇게 여린 새잎들, 그리고 나는 어둠이 걷혀가는 새벽풍경을 좋아한다. 어제에 보았던 것이지만 새벽에 다시보면 싱싱하고 새로운 느낌을 주기때문이다. 내가 여행을 좋아하는 것도 새로운 풍경과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며 내가 잠에서 깨어나면 창문부터 활짝 여는 것도 이처럼 싱싱한 새벽을 내안으로 들여놓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나의 현실은 세상의 첫 풍경을 만나기에 인색하다.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공부, 원수놈의 공부때문에 여행간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쉽지않다. 밀린 숙제를 하다보면 늘 잠자는 시간이 자정을 지난다.

어렸을 때는 내가 우리집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서 엄마도 아빠도 오빠도 깨웠다. 나는 소리소리 지르곤 했다. "엄마 아빠 참새소리 좀 들어봐요" "오빠야 장미꽃 피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뉴스보다도 신나는 뉴스였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도리어 식구들이 나를 깨운다 "리태야 얼른 일어나거라" "리태야 학교 늦겠다" 솔직히 요즘의 우리집 아침소리는 지겨운것들 뿐이다.

그런데 작년 여름방학때 나는 시골 곤지암에 가서 한동안 지냈었다. 소머리국밥으로 유명한 곤지암에서 양평가는 쪽으로 10여분 차를타고 가다보면 산아래에 연곡리라는 마을이 나오는데 그 마을의 은행나무 뒷집에서 한동안 머문것이다. 젖소농장이 바로 앞에 있어서 냄새가 바람따라 흘러 들어오곤 했지만 넓은 밭이 딸린 그집은 나에게 신 천지였다. 눈만 들면 서울의 그 지겨운 시멘트 건물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푸른나무 푸른하늘이 보였고 밭에는 호박, 참외, 상추, 들깨, 고구마도 자라고 있었다. 그 뿐인가 마당가에는 넝쿨장미, 봉숭아, 채송화, 맨드라미 그리고 그곳의 처음만난 붓꽃도 늘 새롭게 피어나고 있었다. 연곡리에서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지 않을수가 없다. 새들이 그렇게 많이 짹짹 거리고 소들도 음메음메하고 우리가 자는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엄마 아빠 또한 일찍 일어나서 밭일을 했었는데 나는 그곳 생활이 풀나무처럼 싱싱해서 좋았다. 무엇보다 더 눈에익은 서울의 사람들과 건물들과 차들에서 푸른산과 푸른논밭과 푸른나무들을 대한다는 것은 지치지 않아서 좋았다. 아마도 우리 사람은 푸른물 좋아하는 기운이 우리 피속에 있는 모양이다. 푸른산과 푸른나무를 보는것이 지겹다는 소리는 아직껏 들은적이 없지 않은가. 그런데 그곳에서 나는 아침이면 밭에 갔다오는 아빠의 바지가 젖어 있는것을 볼수있었다. 나는 처음 호스로 물을주고 와서 그러는가 생각했다. 그런데 날이 맑은날도 호수로 물을 대지 않는날도 아빠의 바지는 젖어오는 것이었다. 그런데 어느날 아침 내가 아빠를 따라서 밭두렁길을 걸어오면서 그 의문이 풀렸다. 이슬, 이슬이 바지를 젖게 하는 것이었다. 풀잎이나 콩잎이나 고구마잎에 내려있는 그 작고도 작은 수많은 이슬방울들 그것은 새벽의 신비였다. 세상에 새벽이슬보다 더 맑은 것이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하겠다. 밤사이에 별이 흘린 눈물인가. 나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다. 한번은 콩줄기와 줄기사이에 어린거미가 쳐놓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그물을 보았는데 글쎄 거기에 작은 이슬방울들이 조롱조롱 달려있는 것이었다. 아, 아기거미가 저 이슬방울 하나를 가지면 목욕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 나는 기뻐서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하도 가슴이 충만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이게 웬일인가. 이슬방울을 두셋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닌가 나는 지금도 내방정으로 아기거미 목욕탕 셋을 깨트린 것을 후회하고 있다. 곤지암 새벽에 또하나 생각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어느날 새벽에 아빠를 따라 산책 나갔다가 만난 언니였다. 그 언니는 무슨일로 산을 헤매고 다녔는지 상의까지도 이슬에 비에 젖은듯 푹 젖어있었다. 아니 긴 머리카락 조차도 물에 감은듯 젖어있었다. 아빠는 밤사이에 홀로 헤매지 않을수 없는 고통이 있나보다 하고 말했다. 나는 웬지 가슴이 아팠다. 밤사이에 별들의 눈물과 같은 이슬을 맞으며 들과 산을 헤맨 그 언니는 지금은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다. 오늘 아침에 비온것을 보니 더욱 그 생각이 난다.

새벽이슬 그것은 순수이고 청순이고 신비이다. 때로 새벽 이슬속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영롱한 맑음이 그리고 영롱한 무지개를 볼수있다. 그러나 지금은 이슬방울이 남몰래 흘린 눈물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 어른되어 가는것을 거절 하고도 싶어진다.

심사평

이번 백일장에 참가한 30여편의 수필을 읽고 심사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것은 참가자 대부분이 수필이라는 문학적 표현형식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많은 경우 주어진 주제를 정확히 파악하여 나름대로의 재치있고, 간혹 번뜩이는 발상을 제법 짜임새 있게 적절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술방법에 있어서 사건과 대사에 의존하고 있어 수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서술문화 부문에 더 가까운 점이 아쉬웠다.

'새벽 이슬'을 주제로 하여 진술된 작품들은 대자연과 만나는 기쁨을 이슬처럼 맑은 의식으로 그리고 있거나, 혹은 현대 도심생활의 분망함과 삭막함속에서 잃어버린 자연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내고 있었다. 한편 '빈대떡과 피자'라는 주제에 쓰여진 작품들은 우리 전통성의 표상인 빈대떡과 이국적인 맛과 분위기로 오늘날 청소년층의 식욕을 지배하는 피자 사이에서, 우리의 것을 옹호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 때문에 수필에 필수인 자연스럽고도 구속받지 않은 정신의 산책이 그속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보였다.

입상작으로 오른 작품중 '새벽이슬'을 주제로한 글들은 표현코저하는 대상만큼이나 영롱한 감수성과 언어가 돋보였다. 특히 장원에 오른 정리태양의 '곤지암, 새벽 그 언니와 이슬'은 뛰어난 시적 감수성을 느끼게 하는 표현으로도 단연 돋보였지만, 실성한채로 대자연을 헤매는 한 여인의 슬픈 사연을 여운으로 남기면서 자연에서 인간에로 돌아오는 기로의 발걸음이 미더웠다.

우수 1석 나은미양의 '빈대떡과 피자'는 약간의 작위적 설정이 흠이기는 하나 역시 만만찮은 이야기순의 기질이 엿보였다. (홍기삼·이정순)

수필 우수1석

빈대떡과 피자

나 은 미
〈영신고 3년〉

할머니께서 돌아가신지 벌써 10년이 지났다. 풍만한 체구에 후덕한 성품을 지니셨던 내 할머니. 지금도 비가 오는 날이면 그 분의 생각을 하곤 한다.

전쟁에서 부상을 당하신 할아버지를 모시고, 다섯 아이를 혼자 감당하셔야 했던 내 할머니는 어릴적 나의 눈에도 무척 억척스레 비춰졌었다. 곡물상을 하셨던 그 분은 늘 목이 쉬어 있으셨고, 쌀 한 가마니는 거뜬히 들어 올리시던 건장한 분이셨다. 그러나 나에게는 늘 다정한 분이시던 내 할머니. 외가 문을 열고 들어섰을때 느껴지던 내 할머니의 따뜻함을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외가에 들어설 때면 늘 풍겨지곤 했던 냄새. 김치를 넉넉히 넣고, 고기와 여러가지 야채를 넣어 기름에 풍성하게 부쳐내던 빈대떡 냄새. 그 냄새가 지금도 코 끝에 생생하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 냄새는 아마도 할머니의 사랑냄새일 것이다.

손녀 딸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할머니께서는 제일 먼저 녹두를 물에 불리셨을 것이다. 농촌 살림에 뭐 그리 대접할 것이 많았겠는가. 할머니께서는 두번 생각도 않으시고 빈대떡을 준비하셨을 것이다. 손수 녹두를 맷돌로 갈아서 만들어 주시던 빈대떡. 쌀 한 가마니를 거뜬히 들어 올리시던 그 우직한 손으로 만드신 그 맛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할머니-. 하고 부르면 '오냐, 내 강아지 이제 왔는감.'하고 대답하시던 부엌에서의 인사. 기름 때가 얼룩진 앞치마에 손을 닦으시고 얼른 나를 안아주시던 할머니의 따뜻한 가슴. 그 안에서 스며나오던 기름 냄새가 나는 참 좋았었다. 부엌에 쭈그리고 앉으셔서 못생긴 빈대떡만 골라 드시며 나는 이런게 좋다시던 내 할머니의 피곤이 서린 웃음. 나는 그 옆에서 마냥 좋아 하기만 하던 할머니의 강아지였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신지 일년 쯤 지나서 나는 새 할머니가 들어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다. 어머니께서는 무엇이 그리 노여우신지 외가로의 발길을 끊으셨고, 명절때면 아버지 혼자 조용히 다녀 오시곤 하셨다. 할머니가 안계신 외가에 흥미가 없었던 나는 이유도 묻지 않았었다. 그리고 내가 철이 들때쯤 외가를 다시 방문 했을때, 나는 어머니의 노여움의 이유를 알게 되었다.

외가에 계신 새 할머니는 어머니의 맨 막내 동생이던 외삼촌 보다도 젊으셨다. 흙과 나무로 된 외가는 흔적도 없었고, 빨간 벽돌로 된 이층집이 외가가 있던 자리에 들어서 있었다. 집 내부에는 텔레비젼, 세탁기는 물론 노래방 기기까지 갖추어져 있었다. 내 할머니가 평생을 거쳐서 모은 재산이 다 누군가를 위한 물건들로 바뀌어져 있었다.

외가에 들어섰을때, 나는 향수 냄새를 말았다. 아마도 새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계시던 새 할머니에게서 나는 냄새였을 것이다. 정갈하게 꾸민 집 내부에는 강아지도 없었고, 까맣고 큰 솥도 없었다. 내 할머니가 기름을 넉넉히 두르시고 빈대떡을 부치시던 그 까만 솥 뚜껑도 없었다. 그 곳에는 번쩍이는 스테인리스 후라이팬이 있었고, 가스 오븐 렌지가 있었다.

새 할머니께서는 요새 젊은 애들은 이런 걸 좋아 한다시며, 피자를 만들어 주셨다. 다 만들어진 재료에 굽기만 하면 되는 그런 피자를 매끈한 손으로 나와 내 동생에게 건네 주셨다.

"언니 참 맛있다."

동생은 새 할머니를 무척 좋아하는듯 했고, 깨끗한 새집에서 마음껏 뛰어 놀았다. 그 곳에는 동생을 무섭게 할 강아지도 없었고, 벌레들도 없었으니까…. 그러나 나는 노란 에이프런에 케찹이 묻었을때, 얼굴을 찡그리시던 새할머니의 표정과 날씬하고 젊은 그 모습에 익숙해 질 수가 없었다. 그저 나의 눈은 돌아가신 할머니의 흔적을 이곳 저곳에서 찾으려고 애를 썼고, 나의 코는 정겨운 할머니의 기름냄새를 찾고자 킁킁 거렸다. 그러나 그 곳에는 내가 할머니를 느낄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햄버거를 좋아하고 피자를 좋아하며 식혜보다 콜라를 좋아하는 세대이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끊임없이 할머니의 가슴에 안기고 싶은 어린 아이이고, 그 할머니의 가슴은 어머니의 것과는 다른 아주 특별한 것이다. 피자를 만드는 옷에서는 결코 날 수가 없는 냄새, 그런 냄새가 나는 할머니의 가슴이 지금도 몹시 그립다.

세월이 지나면 나도 결혼을 해서 딸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또 세월이 더 지나면 그 딸이 결혼해서 딸을 낳을 것이다. 그 딸이 방안을 뛰어다니며 말썽을 부릴 나이가 될 때쯤 나는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집에 초청할 것이다. 그때 나는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다 젖혀놓고 내 손녀를 위하여 빈대떡을 만들어 주겠다. 손녀가 피자를 좋아하든, 햄버거를 좋아하든 관계없이 나는 녹두를 갈아서 빈대떡을 만들어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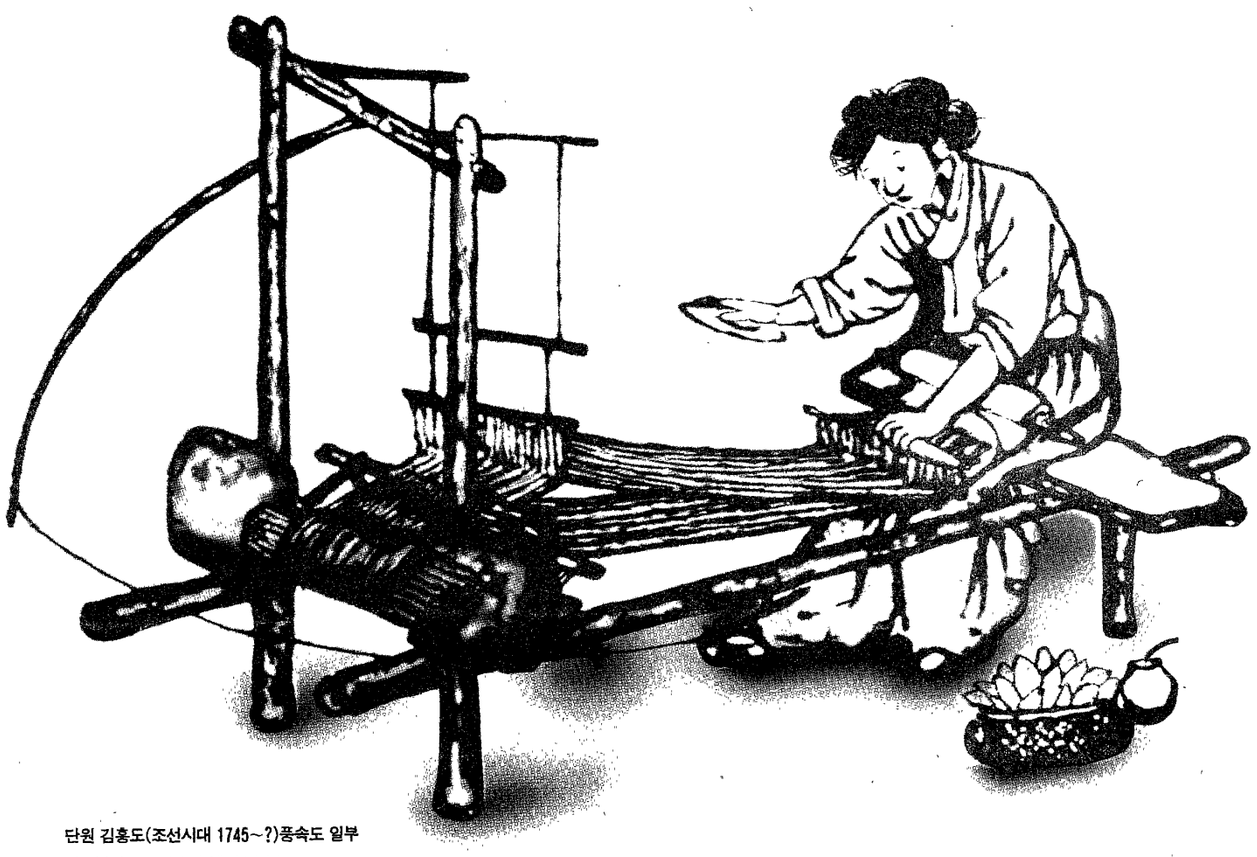
손녀 딸이 정신없이 현관 문을 들어설때, 나는 기름이 잔뜩 묻은 손을 아무리 좋은 앞치마라도 상관없이 비벼서 닦으며 손녀를 가슴에 안아 줄 것이다. 옛날에 내 할머니가 손수 만들어 주시던 빈대떡을 맛있게 먹던 내 어린시절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때 그 피곤이 섞인 인자하고 따뜻한 미소를 흉내도 내보면서….

세상은 점점 편리한것을 추구하려 한다. 다 만들어진 새로운 재료로 굽기만 하면 되는 피자가 젊은이들에게 빈대떡보다 더 사랑받고 있다. 앞으로는 더욱 그렇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가치들이 있고, 그 가치는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피자를 만드는 사람에게서는 결코 날 수가 없는 냄새를 내 할머니의 가슴에서 맡았던 그 값진 가치가 내 손녀에게도 전해졌으면 좋겠고, 나는 그 가치를 가르쳐 줄수 있는 그런 할머니가 되고 싶다.

녹두를 물에 불리고, 맷돌로 가는 그 번거러움을 뒤로하고! 김치와 고기를 넣어 기름을 넉넉히 하고 풍성하게 빈대떡을 부치는 사랑이 가득한 할머니, 그리고 그 빈대떡을 세상에서 어떤 음식보다도 값있게 먹어 줄 수 있는 손자, 손녀들.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그런 세상을 꿈꾸어 본다.

POSCO 메세지 면학편



단원 김홍도(조선시대 1745~?)풍속도 일부

예로부터 조선시대나 옛 중국에서는
여인네들의 길쌈(베짜기)은 생계를
위한 커다란 수단이었다.

孟母斷機之教

맹모단기지교

유학을 떠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어머니가 보고싶어 공부도 채 마치기 전에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돌아 온 아들의 모습을 본 어머니는 짜고 있던 베를
곁의 장도로 자르며 아들을 타일렀습니다.
"네가 학업을 그만 둔 건, 내가 우리 가족의
생업을 이어갈 베를 잘라버리는 것과 다름 없다."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크게 깨달은 아들은
그 길로 다시 유학을 떠나 힘써 정진을 한 결과,
천하의 명유(名儒)가 되었으니
그가 바로 공자 이래 가장 유명한 대학자 孟子입니다.

밝은 내일은 힘써 학업에 열중하는 젊은이만이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국민의 기업, 우리의 기업 -
포항제철

본사주최

제33회 전국 고교문학콩쿠르 입선작

소설우수1석

홍연주
〈안양예고 3년〉

배 신

이 모든게 그 아저씨 때문이었다. 처음엔 나와 성애도 그 아저씨를 진짜 삼춘이라고 생각했었다.

성애는 변했다.

자꾸 밖으로만 맴돌려고 하고 엄마와는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런 성애가 너무도 불쌍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마만 탓할 일도 아니었다. 엄마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엄마 또한 불쌍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아저씨가 미웠다. 왜냐하면 엄마와 성애 사이를 갈라놓은 사람이 바로 그 아저씨 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색은 할 수 없었다. 성애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히 힘드실텐데 나까지 속을 썩이면 아마 엄마는 너무도 지쳐서 모든걸 포기해 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0년전 아빠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후로 엄마는 철없는 우리 자매를 위해서 몸을 아끼시지 않으셨다. 시장에서 식당을 경영하시는 큰엄마 댁으로 가서 하루종일 음식을 만들고, 씻고, 나르시다가 저녁이 늦어서야 돌아오셨고 그때마다 엄나는 봉지 가득 누룽지에 설탕을 뿌린 것을 우리들의 군것질 거리로 가져오시곤 했다. 그때에는 그것이 우리가 맛나게 먹을 수 있는 최고의 군것질 이었다.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서로 싸우도 했었으니 말이다.

밥을 할 때에도 한톨이라도 아끼려고 쌀을 계량컵으로 정확히 재서 한사람 앞에 한그릇 씩만 돌아가도록 했었고 반찬은 김치가 전부였었다. 가난하고 궁핍한 행복했던 시절이었다. 가난때문에 다른걸 생각할 여유도 없이 너무나 바쁘게 생활했기 때문에 배고픔만 해결되면 행복했던 그 시절, 하지만 지금은 너무도 많이 변했다.

아빠가 유일하게 우리에게 남겨준건, 집 한채가 고작이었는데 7년전쯤 엄마는 그 집한채로 사업을 시작하셨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최소의 공간만 제외시키고 엄마는 그 밖의 공간을 방과 부엌으로 고쳐서 전세를 내주었다. 그러곤 그 전세금으로 일수를 시작하셨다. 장부를 만들고, 저녁마다 수금을 다니시고, 가끔은 계장이 되어 계도 하셨다. 엄마는 정말 열심히 뛰어 다니셨다. 그 결과 우리는 새 아파트를 장만해서 이사를 하게 되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족은 행복했다.

우리는 새 아파트로 이사한 것이 너무도 꿈만 같아서 온 집안을 열심히 청소하고 집안 일을 미루지 않는등 너무 좋아서 싱글벙글 이었다. 그런데 이사를 하고난 한달 후쯤 그 아저씨의 등장으로 인해 우리의 행동은 깨지고 만것이다. 그 아저씨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나와 성애는 엄마를 무척 사랑했다. 그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지만 말이다. 특히 성애는 나보다 더 많이 엄마를 위해 엄마 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저녁상을 차려 놓는등 그런 일들을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성애는 성격이 무척 예민한 아이였다. 늘 쇼파에 쿠숀이 가지런히 놓여 있어야만 안심을 했고, 집안의 머리 카락 하나 때문에 온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곤 했다. 그리고 성애는 학교에서 글씨를 쓰다가도 글씨가 이상하게 써지면 마음이 불안해진다고 했다. 성애의 예민한 성격은 이것 뿐만이 아니었다. 어쩌다 엄마가 수금이 늦어져서 늦게 오는 날은 잠도 자지 않고 집 밖에서 엄마가 올때까지 기다리곤 했다. 추위나 비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성애야! 안으로 들어가서 기다려! 엄마도 이제 곧 오실텐데 너무 춥잖니?"하고 내가 물으면 성애는,

"엄마는 나보다 더 추울꺼야! 이 정도 추위는 아무것도 아냐!"

하면서 끝까지 엄마를 기다리곤 했다.

나는 그런 성애를 효녀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런 성애가 지금은 너무도 많이 변해 버렸다. 엄마가 삼춘이라고 부르라며 우리에게 소개했던 그 아저씨.

이 모든게 그 아저씨 때문이었다. 처음엔 나와 성애도 그 아저씨를 진짜 삼춘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 아저씨가 우리집에 오는 횟수가 점점 많아지고 가끔은 밤에 잠도 자고 가는 일이 생기면서 부터 나와 성애는 그 아저씨가 단순한 삼춘이 아니란걸 깨달은 것이다. 성애는 그 아저씨를 무척 싫어했다. 그래서 전부터 엄마와 자주 싸웠었는데 일주일전. 드디어 일이 터졌던 것이다. 그날 그 아저씨는 여행용 가방을 들고 밤늦게 우리집에 왔었다. 엄마는 그 아저씨가 부인과 싸우고 우리집에 온거라고 말했다. 그러자 성애는 부인이 있는 남자가 우리 집엔 왜 오느냐며 반박을 했다. 그런 성애에게 엄마는 그 아저씨가 지금은 부인과 사이가 안좋아서 이혼을 생각 중인데 그 아저씨의 아버지로부터 유산 상속을 받을려면 아저씨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는 이혼을 할 수가 없다고 했다. 만약 그 아저씨가 이혼을 하게 되면 엄마는 그 아저씨와 결혼을 할꺼라고 말하면서 그때까지만 참아 달라고 성애를 설득했다. 그러나 성애는 막무가내였다.

"가정 파괴범이 뭔지 아세요? 아저씨때문에 우리집은 엉망이 되어 버렸다구요. 적어도 아저씨가 우리집에 오기 전까지는 이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버젓이 부인이 있는 사람이 우리집엔 왜 와요? 올려면 부인과 이혼을 하고 떳떳하게 낮에 오란 말이예요! 우리집이 그렇게 우습게 보여요? 당장나가!"

"너 어른하데 그게 무슨 말 버릇이니? 당장 이 방에서 나가!"

엄마가 언성을 높이셨다.

"당장 못나가! 나가란 말야!"

성애가 악을 쓰며 말했다. 그러나 그 아저씨는 멀뚱히 쳐다만 볼뿐… 전혀 움직일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때였다.

'짝'

엄마가 성애의 뺨을 힘껏 내리쳤던 것이다. 그러자 성애는 손을 뺨에 갖다 대고 엉엉 울기 시작했다. 나는 그때까지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다.

"나가자 성애야 얼른!"

덩달아 나도 눈물이 나왔다. 나는 성애를 데리고 내방으로 들어갔다.

"물론 니 입장도 이해하지만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니? 엄마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우린 잠자코 엄마 뜻에 맡겨야 돼! 그동안 엄마가 우릴 위해 희생했던걸 생각해봐 엄마를 이해해 드려야지!"

나는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다. 그러나 성애는 훌쩍거리기만 할뿐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일이 있은 후로 성애는 엄마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엄마! 성애입장도 이해해 주셔야죠. 한참 예민할 나이 잖아요!더구나 성애성격도 생각해 주셔야해요!"

엄마도 성애에게 무척이나 많이 실망을 하신것 같았다.

오늘도 성애는 어딜갔다 왔는지 밤이 늦어서야 집에 들어왔다. 그러곤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자기방으로 들어가서는 나오지 않았다.

아마도 자는 모양이었다. 나는 성애에게 가볼까 하다가 그냥 내 방으로 들어갔다. 복잡했다. 내 입장이 난처했다. 나는 책상에 앉아서 책을 뒤적거리다가 그대로 잠이 들었다. 그때였다. 밖에서 누군가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 가만히 들어 보니 엄마 같았다. 나는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 보았다.

"엄마! 왜 그러세요?"

엄마 주변에는 빈 소주병 두세개가 내동댕이 쳐져 있었다.

"나대문에 깠니? 미안하다. 그냥 힘이 들어서 그래!"

엄마는 마저 남은 소주를 병채로 마셨다. 많이 힘드신 모양이었다. 그렇게 한참을 나는 엄마 옆에 서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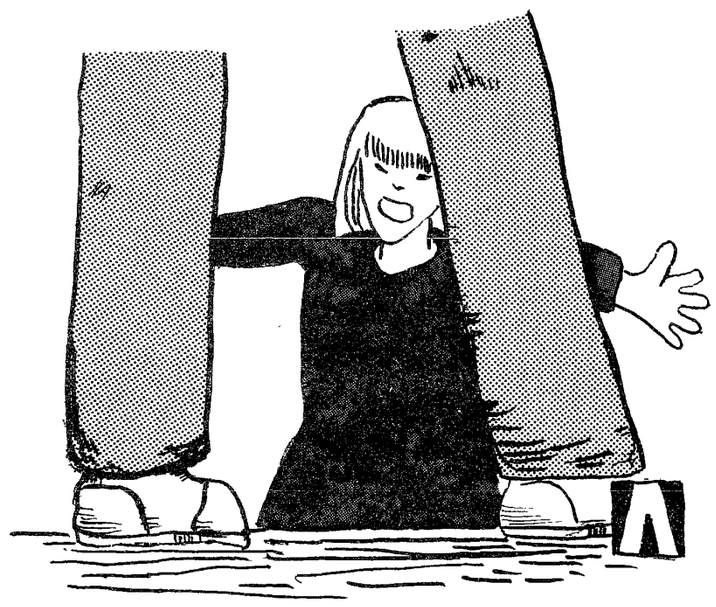
얼마나 지났을까.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성애가 나왔다.

"엄마! 죄송해요"

성애가 울면서 엄마앞에 앉았다.

"많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너무 저만 생각했던것 같아요. 잘못했어요!"

성애가 엄마의 무릎에 엎드려서 울기 시작했다. 그러자 엄마가 성애를 끌어 안았다. 얼마만에 엄마가 성애를 안아주신 것인지. 어느새 내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심사평

제한된 시간 안에 한편의 소설을 써내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소설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경험을 이야기의 짜임새로 재현해내는 문학의 형식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독자에게 경이로움으로 읽혀지는 이야기가 아니면 안된다. 따라서 백일장의 형식으로 써내는 소설에 글쓴이의 재능과 기량이 유감없이 반영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지 모르겠다.

이같은 사정을 감안하고 읽었지만 입선작을 고르는 데서 우리는 곤혹스러움을 느꼈다. 특히 상상력의 빈곤과 사고의 상투성에 우리는 더욱 실망했다.

여기 우수작 한편과 가작 두편을 뽑지만 격려의 뜻이 적지 않다.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생각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사물과 세계를 보는 좀 더 신선한 안목을 가꾸기를 요구한다.

한용환·김용철

낙서장

여기 낙서들은 본사주최 고교문학콩쿠르에 참가했던 학생들이 본사가 마련한 '낙서장'에 쓴 글들을 선별한 것이다. 〈편집자〉

■너무도 먼 산속 깊은곳에 사는 숨심이가 이름하나 걸고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행복해요.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크게 웃을 수 있는 사람 몰거예요.

■남아있는 몇명의 친구들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 동대선배들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문학인이 되길….

■시가 좋아서 여기까지 온건 좋은데 오늘 떠나는 수학여행은 어쩌? 서초고 아이들아, 나를 기억하고 재미있게 놀아.

■쉽지않은 시제로(또는 산문의 제목으로) 쉬운 글을 쓸수 있는것이 진짜 능력이다. 자신이 쓴 글이 마음에 안들면 필력을 더 키울 것이지 제목 탓은?

—성일

■아무리 쉽지않은 주제를 찾는다해도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제한시키는 주제를 낼 수 있는건가? 우리의 능력과 상상력은 무한대다!!

■부산의 3대바보—1) 부산대 축제가는 사람(왜? 재미없으니까) 2)동아대 올라가는 사람(왜? 길이 아니라 등산코스니까) 3) 동의대에 놀러가는 사람(왜? 진짜 못놀고 뻘쭘하니까)

■좋은 추억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동국대에 무궁무진한 발전이 있길 기원합니다.

—상명 화이팅!

■무려 1시간동안 전철을 타고 동대입구에서 내려왔건만 제목보구 놀랜 아이. 3학년동안 추억거리 하나 만들어서 좋긴 하지만…. 이학교에 다시한번 꼭 오구 싶어요.

—안양여고생

■경북의 김성일이 동국대까지 뜨다.

■학문의 전당 부산외국어고.

■세번째 온다. 상에는 별 욕심이…. 고교·삼년을 동대와 함께 해 기쁘다.

—마포고 김태형

■부산의국어 고등학교 일본어과 화이팅!

■大서울외고 중국어과도 화이팅!

■혜연언니, 은미언니, 그리고 상명여고 편집부의 역사를 장식한 우리의 언니들, 드디어 동대가 우리것이 되고 있어요.

—역사 14,15대 아그들—

■정말 2시간이 짧을것이요. 뭔가 모진 싸움이 될것다.

■동대신문사의 영원한 발전을 바랍니다. 언니 and 오빠들 안뇽~

■남아있는 몇명의 친구들,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 동대 선배들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문학인이 되길.

■좋은 주일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동국대의 무궁무진한 발전이 있길 기우녀합니다.

—大상명 편집부 14, 15대

■왔노라, 썼노라, 드디어 탔노라.

—예고 3년

■이화여고 문·청 다녀갑니다. 작년에 우리학교에서 장원을 차지했는데 올해는 좀 무리겠지? 예선에 붙은 것도 영광이다.

■요번이 두번째 이건만 늘 그렇듯이 설레임이 한이 없었다. 모든 일이… 굳이 택하라면 실컷 비맞고 싶다. 나가자!

—우성

■생각나는 사람들만 머리속에 가득. 시를 제대로 못썼다. 하긴 그냥 참가에 의의를 두니. 혼자 오니 외롭다. 나중에 한번 더 와야지.

생활의 향기를 더해주는—동서식품

원고지 넘어가는 수 만큼
커피를 마셨던
세계적인 문호 발자크.

"아침 8시에 간단한 식사.
곧 다시 써내려간다.
점심시간때까지.
식사, 커피, 1시부터 6시까지 또 쓴다.
도중에 커피…"

발자크는 잉크 대신 커피로 원고지를 채웠다.

20여년 동안 오직 원고지와 커피만을 벗삼아
74편의 장편과 헤아릴수 없이 많은 단편들을
남긴 프랑스의 대문호 발자크—
그에게 커피는 외로운 창작의 고통을 함께 해주는
친구요, 신비로운 향기로 예술혼을 일깨워주는
연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른 아침, 내려앉는 눈꺼풀을 부비며
애써 잠을 깨려 마시는 쓴 커피 한잔.
추운 겨울날, 거리 한 모퉁이에서
차가운 입김과 함께 마시는 따뜻한 커피.
이래 저래 일이 꼬여 고개 떨군 직장동료에게
힘내라는 격려로 내미는 한잔의 커피.

우리 삶 곳곳에서 한잔의 커피는
든든한 힘이 되기도 하고,
따뜻한 사랑이 되기도 하고,
즐거운 여유가 되기도 합니다.
메마른 삶에 향기로운 느낌 하나로
다가오는 좋은 친구—

동서식품

본사주최

제33회 전국 고교문학콩쿠르 특집

스승과 제자가 만나는 것 만큼 정겨운 풍경도 없다. 특히 5월 가정의 달은 그런 만남들이 많다.

학보등에는 학생이 학생에게 보낸 담소가 있으며 교생을 다녀온 학생들은 다시 힘들고 보람있었던 4월을 회상한다.

본사주최 전국고교문학콩쿠르 특집호에 교생실습과 고등학생의 편지를 싣는다.

〈편집자〉

교생실습기

맹 운 호

〈문과대 영문과〉

이글은 4월3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된 교생실습에서 필자가 부천 동증학교 1학년을 가르치며 느꼈던 교생실습후기이다.

남 앞에서 말하는 것을, 아이들과 노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아이들을 가리키는 것이 '나'라는 사람과 너무 잘 맞는다고 생각했기에 비사범대인 문과대 학생으로서 나는 교직과정을 신청했다. 중도에 많은 학생들이 포기하고 남학생들의 경우 복학 후 자신의 진로 문제 등으로 대개가 포기하는 교직과정을 나는 끝가지 신념과 자신감을 가지고 이수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종착역에서 수년전부터 설레임으로 기다리던 '교육실습'을 나간 것이다.

학교선정 때부터 말썽이 많았다. (이 자리를 빌어 사범대 교학과에서 업무를 보시는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린다) 지옥철로 소문난 경인선의 통학생이었던 나는(필자의 집은 부천시임) '동대부고'라는 사범대 교학과의 결정을 그냥 받아들일 수 없었다.

통학하던 역곡역 부근에 중학교가 하나 있음을 알고 있었던 나는 3월이 거의 끝나 가는 수요일에 그 학교를 찾았다. 부천 동증학교! 이렇게 하여 나는 동증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처음 만나게 된 키가 작고 안경을 쓰신 교감 선생님께서는 "그래, 어떻게 알고 왔어?" "우리학교에서 자네가 누구인지 알고 받아" "원칙적으로는 안되는 일인데…" 또는 무슨 무슨 서류가 필요하다 등등 구박을 많이 하셨다. (내가 여기에 '구박'이라고 쓰는데는 이유가 있다. 알고 보니 교감 선생님께서는 국문과 출신으로 동문 대선배님이셨다. 내 생각 같아선 후배가 왔다면 반가이 맞고 또 받아주어야 할텐데 그런 난처함을 당하게 했으니 구박이라고 표현해야 적당하지 않겠는가! 물론 나중에 그렇게 하신 이유를 알게 되었고 교감 선생님에 대한 오해는 풀게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나는 배운 것이 많았다. 나의 젊음만 믿고 원칙도 잊은채 세상을 잠시 경시했던 것이다.

4월3일 첫 출근·실습을 위해 한 벌도 없었던 양복을 두 벌씩이나 장만했다. 한 벌은 집에서 다른 한 벌은 누님을 통해서 그래도 두 벌이라 무슨 색깔을 입어야 하나? 또 넥타이는 무슨 색깔로 하지? (구두는 어제 저녁에 깨끗이 손질을 해 놓았고) 무엇을 들고 가야하지? 하며 어수선을 떤 끝에 준비가 끝나고 나는 집을 나섰다.

8시10분 학교도착. 교감 선생님께서 자리를 지정해 주셨고, 교생이 혼자밖에 없는 까닭에 나는 책상도 하나 가지게 되었다. 출입구쪽 1, 2학년 출석부가 또렷이 보이는 곳이 내자리였고 나는 한달동안 출석부지기였다.

어느 여선생님이 오셔서 자기 소개를 하시고, 영어과 ○○○이며 "제가 교생 선생님과 한달동안 같이 생활하게 될거예요"라고 하셨다. 또 다른 한분은 나를 휴게실로 데리고 가시고는 자신이 대학선배이며(국어교육과 85학번), 학교사정 등을 설명하셨고 또한 나를 놀라게 한 교감 선생님이 동문선배님이라는 사실도 말씀해 주셨다.

교무회의시간, 내 소개가 있었다. 내가 공식적으로 교생실습을 신고한 것이다. '그래, 나는 이제 선생님이다. 비록 한달 선생님일지라 과의 할 때나 혹은 짧은 속셈학원 강사생활 때와는 달리 공식적인 선생님이다'라고 생각이 스치고.

나는 도시락 때문에 한가지 결정을 해야 했다. 싸가지고 다니든지, 한식 또는 중식을 시켜 먹든지, 식당을 하시는 아주머니가 매일 준비해오시는 밥을 먹는 것 중에서. 나는 맨 후자를 택했다. 나의 고민을 들었던 과 친구녀석은 도시락을 가지고 가서 아이들과 함께 먹으라고 했었는데… 몇년만에 도시락 준비를 해야하는 어머니는, 더구나 선생님인 자식의 도시락 준비에는 부담을 느끼셨다. 그래서 나의 점심시간은 가사실에서 시작되었다.

식사후 대개의 경우 나는 아이들과 놀았다. 교실 앞 좁은 공간에서의 야구, 복도에서의 축구, 교실 순례, 가끔씩 선생님들과의 대화 등 이것이 나의 점심시간 생활이었다.

처음 일주일은 따분하고 가깝했다. 그리고 내 책상의 위치 때문에 나는 수시로 여러 선생님들의 시야에 자연스럽게 걸리는 경우가 많았다. 또 매일마다 나는 숙제 검사를 받아야 했다. 교생일지 결재가 그것인데 솔직히 약간은 곤욕이었다.

"윗 분들은 가득 채우는 것을 좋아하세요"라는 우리의 선생님. 나는 나를 맡으신 선생님을 한달동안 '우리 선생님', '○○○ 선생님', '나의 hope'등으로 불렀다. 물론 우리 선생님은 이런 것을 모르시고 계셨을 것이다. 말씀에 가능한 한 칸을 비워놓지 않으려고 했으니까 일주일마다 받는 교장선생님 결재날이면 교장 선생님께서는 내가 적은 내용(주로 회고/정리 난)을 일일히 읽으시며 "그래 학생과 친해지려면 이름을 부르가 빨리 이름을 외워서 아니 명찰을 보면 되잖아 아이들은 이름을 불러 주면 친근감을 느껴"라고 하시는 등 조언을 아까지 않으셨다.

2주째 수요일 6교시 나는 첫수업을 실시했다. 1학년 3반, 나름대로 생각도 하고 준비도 하고 우리 선생님 말씀을 주의깊게 들었고 45분 수업과정을 A4지에 크게 적어 교탁에 교과서 지도안과 함께 펼쳐 놓았다. 그런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았다. 다행히 우리 선생님은 25분가량 들으시다 나가셨고 나는 수업을 포기하고 아이들과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질문을 받는 등 아이들의 호기심을 채워 주기로 한 것이다. 그날 교육실습일지의 지도교사 조언은 "수업하는 것도 하나의 기술입니다. 아는 것을 어떻게 쉽게 전달하는가 하는 거죠 오늘 첫 수업에 임해서 수고 많으셨어요"라고 적혀 있었다.

동증학교는 선생님들의 분위기가 굉장히 자율적이고 하시는 일들도 통제를 별로 받지 않았다. 나중에 알았지만 이것은 교장 선생님의 정책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올해 예순 한살이신 교장 선생님은 얼마전 한 사석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결혼하신 선생님들의 시댁에서 굳이 아기 백일이나, 시부모님 생일잔치를 평일에 하시기로 한다면 그것이 설령 한달에 몇 번이 돼도 보내 드려야지. 선생님들은 선생님이기 이전에 아이 엄마요 아내요 며느리 거든요" 또한 교장 선생님은 아이들의 편이셨고 가능한한 학교 제정을 학생들 복지를 위해 쓰려고 노력하신다는 말씀도 하셨다.

어느덧 3주가 지나고 연구수업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수업을 열번 이상 해보았던 나였지만 연구수업에는 자신이 없었다. 그러나 어차피 해야 한다면 잘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하나하나 준비를 해 나갔다. 연구수업교안 만들기가 힘들었고, 컴퓨터에 다소 서툰 까닭에 다른 반 아이의 도움을 받다가 그 아이 부모님에게 혼나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 선생님 도움으로 쌓여가던 걱정은 하나 둘 없어지고 드디어 D-day가 왔다. 교장·교감·연구주임 선생님, 그리고 영어과 일곱분을 모시고 수업을 시작했고 내가 긴장하면 안된다고 마음속으로 굳게 생각하고 "Good morning, class"를 외쳤다. 아이들이 너무 잘해주었고 연구수업은 기대이상으로 성공적이었다. 그렇게도 떠들던 녀석들이 쥐죽은 듯이 조용하고 내가 묻는 말에 시키는 말에 교실이 떠나갈 정도로 반응을 해주었다.

점심 식사후 강평회 시간에 선생님들의 반응도 좋았다. 젊은 선생님의 패기가 활력을 느꼈다고 하셨다. (이 난을 빌어 우리 선생님께 난 다시 감사를 드린다. Role play용 그림을 손수 그려주시고 차트 만드는 일 교실정리 등을 직접 해주신 선생님의 모습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헤어지는 그날이 왔다. 나는 자연스럽게 보이고 싶었고 마지막까지 아이들에게 삶의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었다. "너희들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조금만 참고 열심히 한다면 선생님보다도 더 멋진 자신의 삶을 만들수 있다." 이렇게 이별 인사를 하고 전화번호 수첩을 아이들에게 나눠 주었다. 그리고 맨 뒤에 각자 자기 이름을 쓰고 수첩의 중간쯤에 선생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적으라고 칠판에 크게 한자한자 써 주었다.

마지막으로 다소 말썽 많고 걱정이 되던 아이들을 한명 한명 크게 불러가며 "○○○야 잘할 수 있어. 선생님은 ○○가 걱정이야. 하지만 선생님은 믿는다."하며 용기를 심어 주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울었다. 많이 떠들어서 투표를 통해 선도부장으로 뽑힌 녀석이 눈동자가 촉촉해 지더니 그만 울었다. "○○야! 장래희망이 경찰서장이잖아. 열심히 공부해서 꼭 경찰서장이 되어 나중에 선생님하고 만나야 돼."라고 하여 달래서 집으로 보냈다.

정류장 앞에서 차를 기다리노라면, 버스안에서 선생님하고 손을 흔들던 아이. 시장에서 순대를 먹으며 반아이들과 자신, 자기집에 대해 또박또박 얘기해주던 아이. 보고 멀리서도 달려와서 인사를 하고 도망가던 아이들이 머리속에 스친다.

끝으로 먼저 경험을 한 사람으로써 교생실습을 하면서 느낀 것들 중에 후배 교생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은 몇 가지 말을 적음으로써 부족한 이글을 맺고자 하다.

첫째 교생실습에 임하는 마음자세다. 내가 처음 어색함을 느낀 것은 바로 '내가 정말 선생님인가'라는 자신에게의 물음이었다. 교생에게는 우선 자신이 선생님이라는 자의식이 중요하다. 이런 마음 자세가 됐으면 비로소 스스로의 말이나 행동이 선생님의 그것이 된다고 생각한다.

둘째 학과목에 대한 자신감이다. 나는 비록 중학교에 가서 1학년 아이들을 지도했지만 경험부족 혹은 교과연구부족 탓인지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가'하고 여러번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리고 가끔 몇몇 아이들의 질문을 받을 때 당황하기도 했다.

학과목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려면 많이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물론 교직을 하는 대부분의 학우들이 성실하니까.

마지막으로 실습학교 선정에 관한 자신감이다. '모교가 아니면 힘들다'는 말은 언제부터인가 교생실습을 나가는 학생들에게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되어 버렸다.

그러나 아니다. 자신만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면 모교가 아니어도 자신의 힘으로 학교를 정할 수 있다. 차분히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가지고 학교문을 두드리면 그 문은 열린다고 나는 확신한다.

선생님께

이글은 송파여고 윤성은 학생이 교생선생님이었던 신혜경(역교4)양에게 보낸 편지이다.

선생님께.

선생님

젊은 날이 항상 그렇다고 말해지는 것처럼 저에게도 예외는 없이 너무나 빨리 흘러간 한달이었습니다.

글쎄요-.

모르는 사람들과 처음 만나고, 어색한 인사를 나누다가 어느새 가까워진 자신들을 발견하며 그 우정과 사랑이 변함없기를 기도도 해 보지만 결국 서로 가야할 길에 눈을 돌려 떠나게 되는 것이 현실이랍니다. 알수 없는 이야기죠….

솔직히 저에 대한 이야기- 본질이나 꿈- 별로 할 시간도 없었지요. 그저 겉만 맴돌 뿐 기회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고, 저한테 중요한 건 현실이 아니라 미래일 꺼예요. 이 말이 저를 어떻게 몰아갈지는 생각해 본 적 없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미래를 위해선 현실에 충실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오늘 하루 짧은 숨을 내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꿈을 소중히 하고 싶습니다. 그 누구도 그 꿈을 비웃거나 망가지게 할순 없어요. 절대로….

부질없는 이야기지요. 어쩌면….

모르겠어요. 이제껏 저는 남들이 맞추려고 하는 틀에 박혀져 살아왔던 것 같아요. 때론 갑갑해 숨이 막혀도, 발버둥질 칠 힘도 없었지요. 윤·성·은 안시켜도 알아서 잘하는 아이, 쩔러도 피도 한방울 안나올 애, 때론 건방지고, 반항기있고 어른들한테도 하나 안걸려고 하는 애. 자존심 세고 욕심많고 질투 많은, 거기다 고집불통, 구제불능인 애. 하지만 말 잘하고 똑똑하고 야무진 면도 있는…. 저는 그런게 싫지만은 않은지 도무지 벗어날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여력이 없는 걸까요? 저도 잘 울고, 잘 웃고, 공부보다는 산과 바다를 사랑하는 10대 소녀로 그들의 눈에 비치면 안되는 걸까요? 이젠 지겨워져요.

선생님.

모르겠어요. 선생님께는 제가 어떻게 비춰질까요. 그저 선생님이 말았던 반의 한 일원으로서…. 조금은 특별한가요? 글쎄, 특별하다는 의미조차 알수가 없습니다. 단지 오랜 기억에 남도록 기도할 뿐이지요.

또 연락해서 만나면 그만일꺼라는 생각보다는 또 선생님을 대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마음이 드는건 왜일까요.

감사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선생님이 보여주셨던 맑은 웃음과 사랑 그리고 함께한 번뇌가 선생님이 남기고 가실 텅빈 자리들을 가득 메우게 될 겁니다. 제가 약속할께요.

못다한 이야기가 서럽네요.

이젠 정말 줄여야겠습니다.

오래도록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안녕히 가십시요.

95. 5월이 오는 길목에서

넥타이 색깔까지도 세심히 준비

교사들의 지도와 학생들의 호응속에 연구수업

자신감 있는 수업위해 전공 열심히

'한반도 통일국가체제의 구상'이라는 주제의 학술토론회가 지난 1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한겨레신문사와 학술단체협의회(이하 학단협)가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지금까지 통일문제를 단순 통일과정에만 치중한데 비해 통일후의 사회모습과 국가체제의 구상을 했다는데 그 의의가 자못 크다.

제1주제는 '민족과 통일'로서 본교 강정구(사회학·학단협 상임공동대표)교수가 민족사적 과제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또한 2주제는 영남대 박홍규(법학)교수가 '통일후 사법제도의 구상'이란 주제로 사법제도에 관해 발표하고 뒤이어 3주제인 '통일국가 정부체제의 구상'을 호남대 백운선(행정학)교수가 발표했다.

여러 측면에서의 통일국가 체제구상이 있었으나 이글에서는 강정구 교수의 '민족과 통일'이란 주제를 중심으로한 발표및 토론에서 제기된 통일국가 체제에 대한 논의들을 들어 본다.

90년대 세계는 대전환기이다.

국가사회주의가 역사적 대안력을 잃고 자본주의 체제에 묶였고 진존국가들도 점차 통합되고 있다. 동북아 주변 4강은 급격한 변화가 아닌 장기 안정구도를 택하고 있다.

또한 전세계는 지구촌화와 엔블럭및 중화경제권이 형성되고 있다.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통일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통일자체가 아니라 이떤 통일을 이루느냐인 것이다.

강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통일을 이루는 과정을 크게 세가지로 나눈다.

먼저 지금까지의 외부 규정력을 민족역량으로서의 상수가 아닌 변수의 개념으로 새롭게 인식했다.

따라서 민족사의 행로는 결국 남과 북의 대단결과 단일 역량구축 여부에 달렸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통일은 사회 각 부문에서 실질적으로 '민족공동체'로 복원·발전시킨 형태로 '주연방주의와 보기능주의'의 접합전략을 내세웠다.

공동체를 이루는 발전적 통일이 가능하려면 남과 북이 각각 주장해온 접근방식, 즉 시민사회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강조하는 '기능주의'와 정치·군사 부문의 일괄타결을 중시하는 '연방주의'를 접합한 형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평화협정 체결, 군축운동, 징병제 철폐 운동 등을 기반으로 하는 평화체제운동과 국가보안법 철폐, 민중정당 지원, 노동법 개정 등을 통한 정치사상·이념적 접목운동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에 덧붙여 현실에서 앞선 남한이 이런 조처를 주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통일방향의 변화를 제시하였다.

통일운동도 기존의 정부를 중심으로한 관변통일과 재야를 중심축으로 한 양분구도가 서서히 허물어 진만큼 다양해져야 한다.

각종 시민운동과 통일운동이 자연스럽게 접목되어야 한다는 것과 통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가지 기본과정을 토대로 통일국가 체제의 순수 이념형은 민주화와 착취 완화·폐결을 근간으로 삼는것이라고 강교수는 피력한다.

사회경제체제는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 의사결정과 소유권에 대한 사회적·인민적 통제에다 시장 조절기능이 가미된 '사회자주관리'형식을 제시했다.

요컨대 통일국가의 사회경제체제는 남한의 천민자본주의와 북한의 국가사회주의 둘다를 지양한 인민권력과 사회소유의 결합형태가 타당하다고 보았다.

토론과정 속에서 강교수가 주장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북한주도의 통일방안이라는 의심을 갖게 한다는 지적과 함께 일방적 양보주의, 피해 우선주의, 상대우선주의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위배된다며 북측에서도 이러한 양보와 포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분단50년, 해방50년을 맞아 민족사적 과제의 획기적인 출발점을 다짐것을 결의하며 토론은 끝을 맺었다. (양수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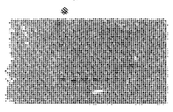
'한반도 통일국가의 체제구상' 학술대회를 다녀와서

'분단50년·해방50년 민족사적 전환기로 삼자'

강정구 교수, '연방주의·기능주의 접합형태 통일 합당'

인권문제 입문

책 소개



인권문제 입문

한상범 (법학) 교수 지음

연 기 영
(법과대 법학과교수)

아직도 시중의 서민의 법적 감각으로 보면 '인권'이라고 하는 문제는 정치권력에 의해 탄압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가까이 하길 꺼리는 사항이 되고 있다. 문민정부가 들어선지 3년이 되고 있다고 하지만, 인권보장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이처럼 가장 우리 생존에 소중한 사람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사항인 인권문제가 올바르게 다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껄끄러운 주제를 두고 평생을 연구와 실천운동에 바쳐온 한상범교수가 다시 인권문제 저술을 내놓았다.

여기서 한 교수가 다시 인권 책을 내놓았다고 하는 것은 그간에도 이 분야에서는 가장 업적이 많기 때문에 한 말이다. 특히 이번 책은 우리 사회의 인권의 현장을 뛰면서 일어나는 문제를 가장 격동의 시대의 순간에서 문제를 부각해 본 것이기 때문에 그나름의 문제점을 피부로 부닥치게 한다.

이번에 펴낸 책에 대해서 한마디 알릴 것은 한교수가 대표로 있는 '불교 인권위원회'에 이 책을 희사해 그 수익금으로 인권운동에 쓰도록 했다고 하는 점이다. 이러한 한 교수의 자세 하나만을 보아도 그의 학문하는 자세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학술토론회 '지방자치와 시민참여'발표문

한국지방자치, 균형된 지역발전·민족통일에 기여

자율적인 시민단체들 적극적역할 수행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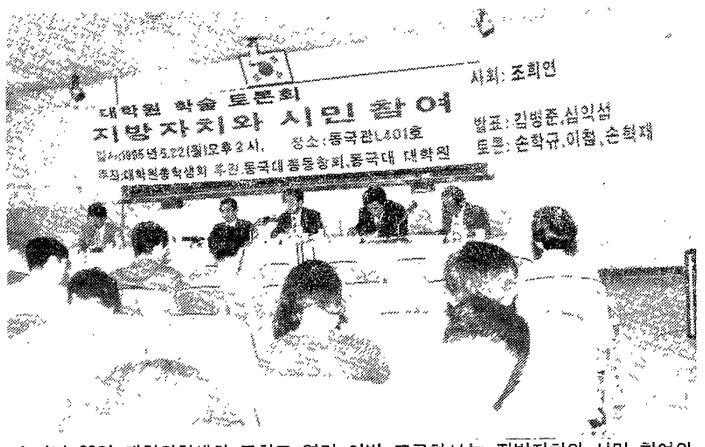
심 익 섭
(사회대 행정학과 교수)

6월27일 4대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자체는 물론, 과연 선거 이후에는 우리 사회가 어떠한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획일화된 정치권력을 분권화하여 주민스스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을 구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민주주의 나아가 국가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지방자치이다. 이때 한국지방자치의 논리적 근거는 한국민주주의의 제도적 완성의 기대, 정치행정적 안정성의 확보, 균형된 지역발전에의 기여, 국가적 대응성의 강화 그리고 독일통일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듯이 민족통일에의 기여라는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앞으로 한국지방자치의 발전방향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관점에서 고찰이 가능하다. 첫째, 지방선거제도와 선거행태의 문제이다. 실질적으로 통합선거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처음 적용되는 금번 선거에서 예상되는 유권자 형태로는 인물중심의 투표형태 가능성(선택의 어려움), 분산투표(Split Voting) 형태, 선거직전까지 부동층 혹은 기권의 증가, 정책대결·토론회 중시 등을 들 수 있는 바, 무엇보다도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세계화와 지방자치의 연계성이다. 세계화와 지방화가 사실상 맞물려 있는 개념임을 이해한다면, 결국 앞으로 세계화의 추진주체는 중앙정부 못지않게 지방정부라고 할 수 있는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지방정치의 활성화가 증시될 것이다.



◇지난 22일 대학원학생회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서는 지방자치와 시민 참여의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가를 탐색하고 있다.

세째, 선거이후 지방자치의 과제 또한 중요하다.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관계나 행정구역 개편은 물론, 본격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행정조직과 운영의 재구조화라던가 국회의원-민선단체장 지방의원등 제주체간의 갈등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예상되는 정계개편 속에서, 겨우 태동한 본격적 지방정치의 장이 중앙정치와의 역학관계 속에서 힘겨운 상황에 처할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벌써부터 "지자체 재정진단"이나 "파산선고제"를 거론하듯이 지방자치제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의 확충, 지방행정을 위한 자율적인 조직권·인사권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지방자치는 단순한 개인적 이해관계의 결과가 아니라 모든 개별적 계약보다 앞서고 더 나아가 그것을 뛰어넘는 사회계약을 전제로 한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본격적 지방자치 실시를 앞두고 공동체 정신에 바탕을 둔 "한국적 지방자치"를 위한 논의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시민의 통제나 참여는 지방자치를 바르게 정립하는 것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어떻게 참여를 위한 시민의 자세와 역할을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다. 즉, 시민의 참여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모두가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막상 그 실천에 있어서는 한발씩 후퇴하는 무임승차(free-rider)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시민참여의 활성화 및 역할증대를 위한 구조적 개선으로서는 적절한 지방자치권의 배분, 보다 다양한 참여메카니즘의 정비, 정보의 공개 및 전달, 참여에 따른 비용의 절감, 시민의 관심과 참여에 대한 공적자의 의식 형성을 들 수 있으나, 특히 시민의 참여를 위한 매개집단의 역할이 중요하다. 즉, 자율적인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바, 전국적 차원에서는 분권화와 시민단체의 활동영역 확대, 전국적인 연계망을 통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적 차원에서는 선거와 관련한 후보자의 추천이나 공약의 유도와 함께 공명선거의 정착을 위한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결국 금번 4대지방선거나 한국지방자치의 발전과 관련한 쟁점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문제로서 지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자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행정구역의 개편문제로서, 현행 행정구역이 행정계층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문제해결에 다가설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 또는 조정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배분이 이루어짐으로써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무의 처리와 지방간의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 네째, 실질적인 시민참여의 정착으로 시민단체 차원에서의 정치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범적인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마디로 한국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참여의 행정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톡톡만필

젊은이 자리는(?)

황 명

오늘날 이땅의 젊은이들은 과연 무엇을 지향하고 있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떤 가치관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을까. 아무도 모를 그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을 때때로 해보지만 내 주변에는 젊은 대학생이 없는 것이 유감이다.

그러나 오며가며 만나는 젊은이들은 더러 있다. 내가 만난 젊은이들은 대개 두 부류의 생각들을 갖고 있었다. 하나는 극히 안일하고 평범한 삶의 태도를 지니고 남들처럼 대학이나 나와서 직장이라도 구해 다니다가 적당한 시기에 결혼해서 가정을 꾸며 소시민으로 살아가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먼 이상 같은 세계를 그리며 그래도 인간이 이 세상에 나온 보람을 어떤 흔적으로 남기고 떠나야 하지 않겠는냐는 생각을 하는 젊은이들은 대체로 사회과학 또는 인문계쪽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었다.

흔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거목같은 지도자가 없다느니 또는 삶의 지표같은것대가없어졌다느니한다. 아닌게 아니라 요즘 젊은이들의 행동에서 가끔 그런 현상을 보기도 한다. 하지만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일부의 젊은이들은 우리를 실망시키지만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을 준다. 거리를 빗이 재치고 다니는 젊은이가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는 저 깊숙한 도서관에서 말없이 책을 읽고 있는 학생도 있고, 혹은 어두운 연구실에서 묵묵히 땀흘리고 있는 학생도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러한 대조적 현실에서 우리 대학생들의 자리는 과연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대학은 무엇보다 공부하고 연구하는 곳이다. 그러기에 대학생은 의당 공부하고 연구하는데 몰두해야 옳지만 거기에 앞서 삶의 지향 내지는 세상을 보는 눈을 일정하게 정해 놓는 것이 옳으리라 생각한다. 지극히 일차원적 이야기지만 어떤 목표가 없는 행위는 자칫 방황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대학시절 적어도 장차 사회에 나갔을 때를 상정하면서 무엇을 하고 싶다. 또는 장차 무엇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저마다 한번씩 해보는 것이 대학시절을 의미있고 보람되게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대학시절의 꿈은 그것이 설령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우리의 삶을 살찌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대학생의 자리가 소중하듯 대학생의 꿈도 더없이 소중한 것이다.

문인협회 이사장

버팔로와 함께하는 자연의 재발견 — ② 제주도

토탈패션의 名家 금강 금강製靴(株)

천개의 전설과 신화가 숨쉬는 곳
유채꽃의 봄으로 거듭나는 땅, 제주도.

세월의 무게가 쌓이고 쌓여 전설이 되고, 전설이 쌓여 신화로 살아있는 곳, 제주도. 더러는 물길로, 더러는 하늘길로 찾아드는 발길을 언제나 무심한듯 한라산에서 뻗어내린 넉넉한 땅품으로 감싸 안는 곳— 천년을 피고 진 유채꽃의 눈부신 봄 속에 한 세월 아픔도 한세월 바람도 고요히 잠들고 있을 뿐, 제주도는 말이 없다. 그저저 만치서 바라보는 물을 향해 "아스라한 전설의 유토피아, 상상의 섬 이어도는 사람과 사람사이, 육지와 바다 사이,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있다"고 낮게 속삭일 뿐. 세상살이의 버거움, 대립과 갈등의 상처를 세월의 바람으로 씻기우고 화해의 손길을 내어미는 곳— 봄으로 거듭나는 땅, 제주도여.

자연을 향한 젊음의 발길, 버팔로가 함께 합니다.

outdoor shoe Buffalo

◇ '양주동전집' 1차 5권출간의 의의

분야별·연대순으로 선생의 모든 글 총망라

무애선생 진면목 이해에 큰 도움 될것

임 기 중
(양주동전집간행위원장·문과대 국문과 교수)

무애(无涯)선생님께서 기세(棄世)하신지가 어언 열하고도 여덟해가 지났다. 공융(孔融)을 비웃던 사람의 입을 다물게 한 매월당(梅月堂)의 재주로, 원효(元曉)대사가 가신 뒤에 국학(國學)의 대들보가 되셔서, 우람한 국학의 집을 지으신 무애선생님이 우리 곁을 떠나신지가 어언 열 여덟해가 지났다.

일찌기 선생님께서는 학자에게는 삼난(三難)이 있다는 명언을 남기셨다. 첫째는 끽반난(喫飯難)이고, 둘째는 저서난(著書難)이고, 세째는 보명난(保命難)이 있다는 것이다. 요즈음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학문도 3D현상속에 속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선생님께서 남기신 삼난(三難)을 생각해 본다. 선생님께서는 향가와 고려가요를 중국인들이 육경(六經)중 으뜸으로 치는 '시경'곧 한국의 '시경'으로 인식하고 계셨다. 그래서 삼장(三長) 곧 재(才)·학(學)·식(識)을 갖추지 않고서는 진정한 성취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선생님께서 강의시간에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말씀 가운데 1942년 '고가연구'가 출판되어 한 책을 육당 최남선선생께 가져가 드렸더니, 육당선생께서 책을 살살이 살펴보시고 아무 말씀도 않고 눈을 감고 한참 동안 생각하시더니, 앞으로 1백년 뒤에 남을 수 있는 책은 오직 '고가연구'한 책뿐이라는 평을 하셨다고 했다. 그리고 무애선생님은 학문을 평가하는 표현으로서 '수박 겉 핥기' '남의 벽에 개칠하기'란 용어를 즐겨 쓰셨는데, 향가와 고려가요를 연구해 본 경험이 있는 학자라면 누구나 쉽게 위와 같은 무애선생님의 용어에 수시로 공감할 수 있었을 것이다.

무애선생님께서는 참으로 많은 글을 쓰셨다. 항상 등신서(等身書)를 강조하시면서 선생님께서는 참으로 키 높이만한 높이의 책을 쓰셨다. 그러나, 선생님의 어느 글에서도 다작의 성김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다. 선생님께서는 국어국문학 관계 저술로 '고가연구' '여요전주' '국문학정화' '국문학독본' '국학연구논고' 외국문학관계 저술로 '영시백선' '세계기문선' '현대영미사전' '시경초' '밀은수필집' '체스터튼 밀은수필집' 'T·S 엘리엇 시선집', 기타 저술로'민족문화독본' '세계문화독본' '고전독본'과 6권의 영문 저술 등 수많은 책을 쓰셨다. 그리고 시집 '조선의 맥박'등을 펴내시고 활발한 작시 활동을 전개하셨다. 1920년대 한창 계급주의문화 시비론으로 이론투쟁이 불붙은 문단춘추시대에는 문학 이론과 비평의 정론을 편 주역으로서 수 많은 평론을 쓰셨다. 그뿐아니라 전고와 해학과 기지가 넘치는 많은 수필을 쓰셨으며, 동서고금의 시와 소설과 희곡 등을 번역하셨다. 다른 한편으로는 수 많은 학술 논문을 쓰셨다.

이번에 동국대 출판부가 출판을 맡고, 양주동전집간행위원회가 자료를 수집하고 편찬하여 세상에 내놓게 되는 '양주동전집' 전 12권은 양선생님께서 쓰신 모든 글을 총 망라하여 집대성한 것이다. 이 전집은 양선생님의 글을 분야별, 연대순으로 배열하고 한자를 가급적 한글화하고, 표준어 맞춤법 띄어쓰기 외래어표기 등을 현행규정으로 바꾸는 등 세심한 배려를 하였다. 새로 찾아낸 귀한 자료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음은 물론이고, 그동안 잘못 알려진 연대, 게재지, 글의 성격등에 대해서도 많이 바로 잡게 되었다. 특히 이 전집의 10, 11, 12권은 그동안 신문 잡지 논문집 등에 실려 있던 글들을 모아 새로 조판을 한 것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이며, 아주 새롭게 탄생하는 귀한 책이 될 것이다. 앞으로 출판되는 이 전집 7권은 대략 권당 8백쪽정도의 방대한 책으로 성책되어 나올 것이다.

무애 양주동선생은 한 시대를 대표하는 석학이면서도, 시인이요, 수필가요, 비평가며, 번역문학자이면서 문장가요 뛰어난 논객이었다. 그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선각자 중 한분으로 꼽하면서도 풍류인이었다. 따라서 무애선생님의 진면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여러 가지를 통합해서 살펴보지 않으면 안된다. 이 전집 간행의 의의는 바로 그런데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전집이 출판되어 나오기 까지에는 실로 많은 분들의 지원과 노고가 있었다. 특히 전집 출판의 역사적 의미를 통찰하시고 흔쾌하게 출판을 허락하여 주신 동국대학교 송석구 총장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전임 민병천 총장님의 어려운 결단에도 감사를 드리며, 좋은 책의 탄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동국대 출판부 백우석 부장님께도 감사를 드린다.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의 후원과 이동림, 이병주교수님의 특별한 후원도 잊을 수가 없다.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무애선생의 아드님 양인환박사의 이해와 후원이 없었다면 이 전집의 탄생은 처음부터 불가능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이 큰 일을 일손을 빌지 못한 상태에서 처리 하다 보니 아는 실수 모르는 실수가 겹쳐서 송구스런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제2차분 간행 때는 반복되는 실수는 거듭하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하면서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이해 있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

달하나 천강에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얼마 전 모 일간지의 한 기사가 던져준 신선한 충격과 감동이 아직까지도 내 마음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긴 여운으로 남아있다. 그 기사는 정년을 아직 15년이나 남겨 놓고 대학교수직을 사직하기로 한 어느 철학 교수와의 인터뷰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그 교수는 관념적인 논리와 건조한 이론이 대학생들의 행동과 삶에 별다른 인간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고 판단,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농촌학교를 개설하여 농사일을 통한 건강한 정서를 함양시킴으로써 진정한 인간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교수직을 떠나기로 했노라고 털어놓고 있었다.

솔직히 말해서 필자는 그 철학교수의 관단이 얼마만큼 타당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그 교수의 결단은 적어도 그가 아직 인간교육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지니고 있으며 교육자로서 타성에 젖지 않고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참다운 교육의 길을 끝없이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해주고 있다고 본다. 필자가 신선한 충격과 감동을 받은 것은 바로 이 점 때문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저 먹고 숨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을 존재(existence), 그 존재를 다시 반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을 삶(life)이라고 정의하였다. 불교에서는 무명업풍(無明業風)에 끌려다니며 노예처럼 살아가는 무반성적인 중생을 업보중생(業報衆生)이라 하고 고귀한 이상과 목표를 세워 자유인으로서 깨어있는 반성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원력중생(願力衆生)이라고 한다.

본래 타성과 안일에 빠지기 쉬운 우리들로서는 웬만큼 자신을 돌보고 추스리지 않는 한, 삶의 차원을 살아가는 원력증생이 되지 못하고 존재의 차원에 머무르는 업보중생으로 남게 될 것이다.

우리 대학의 한 교수님으로부터 들은 진묵스님의 일화가 생각난다. 한 여신도가 진묵스님을 찾아가 복받고 싶으니 그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다. 스님은 부처님께 절을 많이 하라고 했다. 그래서 열심히 절하고 있는 그녀의 등을 향해 스님은 "절 많이 해서 복받는다면 저 디딜방아가 진짜 복을 받겠구먼!"하신다. 그녀는 다시 스님께 복받을 길을 여쭙고, 이번에는 정(淨)하게 하라는 스님의 말씀에 따라 냇가로 가 몸을 씻고 있었다. 스님은 다시 "목욕 열심히 하여 복받을 것 같으면 저 물고기들이 큰 복을 받겠구먼!"하고 호통치셨다는 이야기다.

형식주의와 매너리즘에 빠져 새로운 가치창조를 위해 반성할 줄 모르고 고뇌할 줄 모르는 우리들에게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큰 사자후가 아닐 수 없다.

박 경 준 불교대 불교학과 교수

◇ '섹스북'출간을 통해본 성개방담론

성적 해방운동 위장한

상업주의·성상품화 배제 절실

요즘 문화, 특히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고 있다. 대학가 주변의 사회과학 서점에서도 문화에 대한 책들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또한 많이 판매되고 있다. 그리고 문화의 상품 가치가 상종가를 기록함과 동시에 현대 사회에서 문화 담론의 위치가 상승하자 언론학, 사회학, 문학 등 여러 학문들이 문화 연구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고 연구 성과도 많이 생산됐다.

이러한 문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게 된 배경은 대중매체와 대중문화의 영향력 확대, 현실 사회주의의 몰락, 포스트 모더니즘의 도입 등을 꼽을 수 있다. 문화에 대한 담론은 이제까지 이성 중심 주의와 정신 중심 주의에 의하여 억압되었던 감성, 욕망, 육체를 원래 자리에 복귀시키려고 한다. 특히 욕망과 육체가 통일되어 나타나는 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성의 풍속사에 관련되는 책들이 여러 종 출판되고 있으며 심지어 우리사회에서 금기처럼 여겨지던 동성애마저 'Crying Game'을 비롯한 동성애 영화의 증가로 대중적인 관심과 이해를 얻고 있다. 그래서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반공개적인 동성애 그룹이 출현하였으며 그들 가운데는 동성애와 진보운동을 결합시키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하니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러한 성을 주제로 하는 문화적 관심의 저변에는 무엇이 있느냐이다. 성에 대한 관심이 흥미나 즐거움과 무관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진지한 듯 혹은 정치적 의미를 함축한 성적 해방운동을 하는 듯 위장하는 성적상업주의나 서구적 향락주의가 많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최근 출간된 '섹스북'(박영률출판사)은 이러한 현상의 한 단면이라고 하겠다. 이 책은 높아진 성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진지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규명할 조그마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구성에 있어서 다른 책과 달리 차례가 없는 데, 재미로 특정부분을 선택하여 읽지 못하도록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한다. 이것은 흥미로 이 책을 읽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진지함은 어느 정도 담보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이 책은 귄터 아멘트라는 독일의 사회학자가 집필한 청소년 성계몽서인데 사회학적 기반에서 쉽게 서술하였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 책은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성교육에 대한 관심과 활동이 크게 늘고 있으나 동성애에 대한 입장은 분명하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아멘트의 책은 동성애를 긍정적으로 그려서 과연 우리 실정에 맞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어쨌든 아멘트의 책은 독일의 환경에서 청소년에게 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는 진지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성에 대한 논의, 특히 성해방에 대한 논의는 이와 같이 진지할까?

먼저 성에 대한 논의는 대단히 복잡한 구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포르노그라피를 둘러싸고 페미니즘 진영이 양분되었음은 물론 정치적 진보나 보수의 대립 구도가 이러한 성을 둘러싼 논전에서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성에 대한 견해를 중심으로 '헤쳐 모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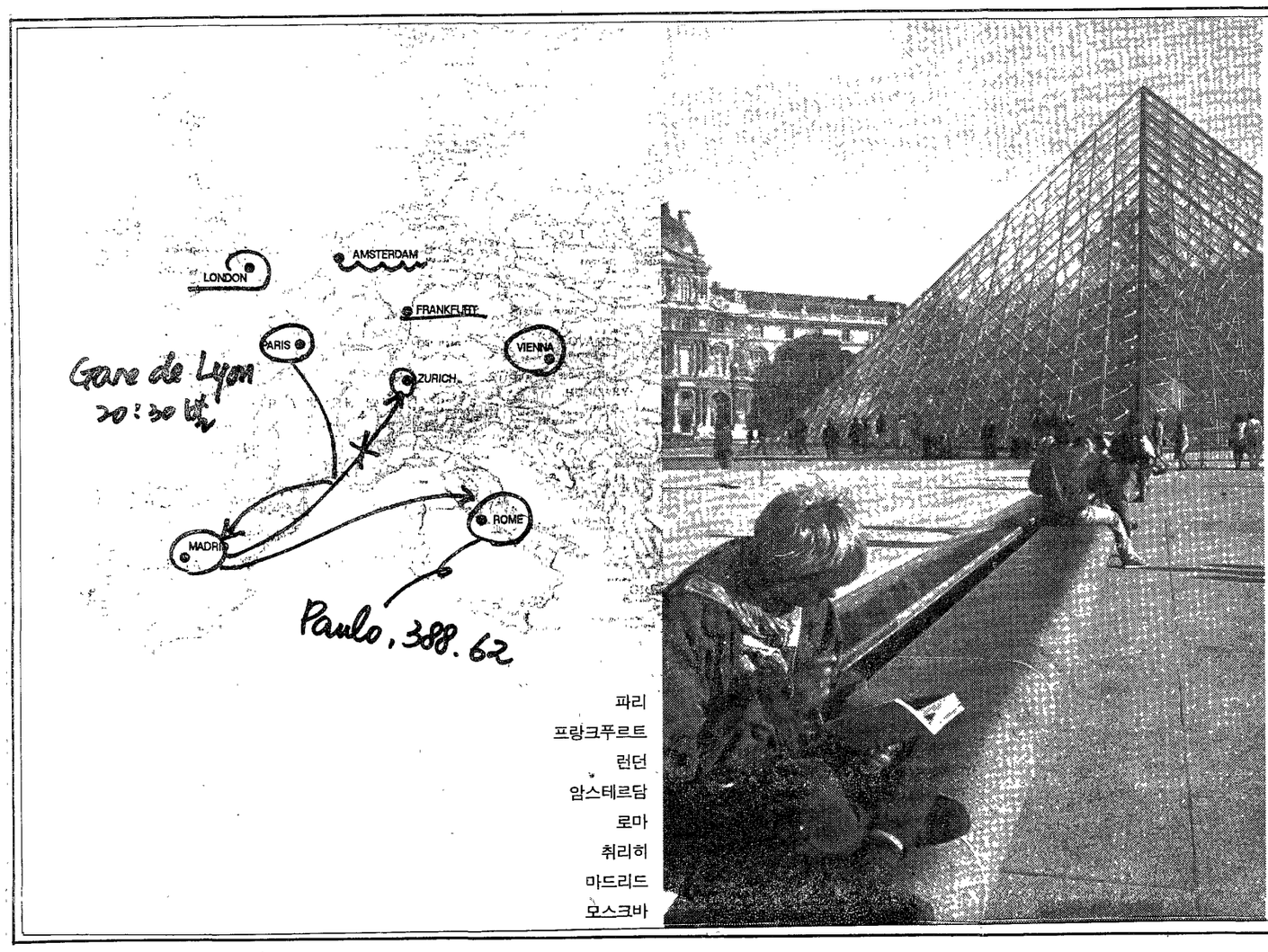
최근 마광수의 소설을 둘러싼 논란에서 진보나 보수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물론 마광수의 소설에 대한 단죄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는가와 연결되는 국면이 전개되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게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보호될 수 없는 쓰레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단죄되어야 마땅하다고 본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사회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았다. 여러 진보적인 학자나 문인이 마광수를 표현의 자유란 측면에서 옹호했다고 해서 마광수를 비판한 사람들이 봉건적이고 극우 보수적인 도덕의식과 근엄한 지식인주의에 예속되었다고 비판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 마광수의 소설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될 만큼 예술적인 세공 과정을 거치지 못한 음란물로 보이기도 하고 근본적으로 여성을 상품화하였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마광수의 소설에 대한 논점은 따져 본다면 우리 사회에서 전체적인 성에 대한 논쟁을 집약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의 성 상품화가 심각한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미 매매춘 시장은 백만이 넘는 여성을 동원하고 40조원이 넘는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유교적 윤리에 근간을 둬서 근엄하고 도덕적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사회의 전면과 달리 그 배후에는 과대 성장한 성산업과 도덕적 타락이 자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 곳곳에 여성의 성 상품화는 심각하게 침투되어 있다. 기업의 여성 채용에는 예쁜 외모와 늘씬한 몸매가 결정요인이 된지 오래이며, 영화, 광고, 컴퓨터 통신등에는 성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상품과 교육에서 있어서 우리 사회의 성에 대한 금압은 아직 여전하다.

정치적인 억압과 성적 억압은 동일한 맥락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성과 정치의 연관을 거론할 수 있다. 성은 정치적인 이해에 따라 개방되기도 하고 도덕적 보수주의와 연계되어 철저히 억압되기도 한다. 우리는 이미 지난 정권들이 내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했으면서도 성에 대하여 얼마나 억압적인 자세를 견지했는지 알고 있다. 그래서인지 정치적 해방과 성적 해방을 연관시키는 견해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경계해야 할 것은 성적 해방에 대한 담론은 흔히 상업주의와 그에 따른 여성의 상품화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 성상품은 포르노그라피처럼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비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 해방을 외치면서 '애마 부인'류의 남성의 외도에 대항하는 여성의 의도를 그린다던가 성에 대하여 진지하게 다루는 척하지만 본질적으로 흥미를 끌어 상품 가치를 높이려는 문화 산물들을 얼마든지 볼수 있기 때문이다.

이 용 성
(한양대 신방과 강사·문화평론가)



파리
프랑크푸르트
런던
암스테르담
로마
취리히
마드리드
모스크바

8월2일, 파리
루브르박물관 앞에서—

혁명은 바로 한줄의 낙서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을까하는
엉뚱한 의구심이 들 정도로 파리는 온통 낙서투성이다.
콧대높은 파리지엥들은 불어가 아니면 쳐다보지도 않아.
이것이 세계인의 찬사를 받는 파리인가 하고 적이 실망도 했었지만
오랜 전통이 파리 특유의 빛으로 발하고 있음을 이제 조금씩 감지하고 있다.
이제 곧 밤기차를 타고 니스로 간다.
프랑스 남부의 푸른바다가 만드는 물빛 새벽을 보고싶어.
대한항공 기내에서 맞았던 수천피트 상공의 찬란한 새벽이 생각난다—

대한항공이 젊은 배낭여행자 여러분을
정성껏 모시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스카이패스—즐거운 여행과 함께
마일리지 누적으로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 더욱 경제적입니다.

예약 및 문의 : (02) 756-2000

21세기 큰 하늘을 여는 우리의 날개
대한항공

◇직원노조 95년 단체교섭 정리

학교와의 미진한 논의속 원칙 합의
직원교육·인사제도 개선 실마리마련

직원노조는 6번에 걸친 임금협약 및 단체교섭을 거쳐 기본급 8%인상(5%는 3월부터 지급, 3%는 12월에 일괄지급)을 체결했다. 올 단체 교섭은 지난 3월16일 오후4시 교무위원회의실에서 김윤길(개교1백주년 사업본부)위원장과 송석구 총장등 노사양측 교섭위원 각 6명이 '95년 임금및 단체협약을 위한 1차 단체교섭으로 시작됐다.

이날은 첫 교섭으로 상견례를 마친후 △'94년 단체협약 미이행 사항 △직원 인사에 따른 충원 문제 △95년 임금 및 단체협약안을 논의했다.

교섭방식에 있어서 평균 인상률을 학교측에서 선제시하는 방식을 고려중이었으며 각종 수당도 조정할 방침이었다.

지난 4월12일 경주캠퍼스에서 열린 4차 교섭까지 학교측은 임·단협의 중요 사안에 대해 준비중이라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구체적인 협상이 불가능해 보였으며 구체적 진전없이 이어왔다.

답답하게 진행돼 오던 협약은 지난 4월27일 5차교섭에서야 약간의 진행을 보였다.

5월1일 열린 직원노조 총회에서 5차교섭까지의 '95년 임금 및 단체교섭 내용이 통과되어 임금협정을 5월4일에 체결했다.

그 주요 내용은 △기본급 인상률=8% 인상 △지급방식=5%는 3월분부터, 3%는 12월에 일괄 지급 △장기근속수당=5년 간격으로 1만원 편차에서 2만원으로 △효도수당=20만원으로 효행 장려를 위한 김장수당 조정 △기타수당='95년 노사협의에서 결정하기로 하는 것 등이다.

단체협약서에 조인한 6차 단체교섭이 18일 교무위원회의실에서 개최되어 단체교섭을 마무리하는 자리를 가졌다.

인사관련사항에서 명예퇴직제와 사무기능직 인사제도 개선이 신설되었다. 특히 사무기능직 인사제도는 처음으로 구체화되어 발전적 내용이 마련됐는데 '96년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후생복지관련 사항에서 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정기적인 복지기금 적립을 부분 개정하였다.

또한 매년 교직원 가족 체육행사 실시와 경주에서 문제제기한 의료원 산하병원 이용시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신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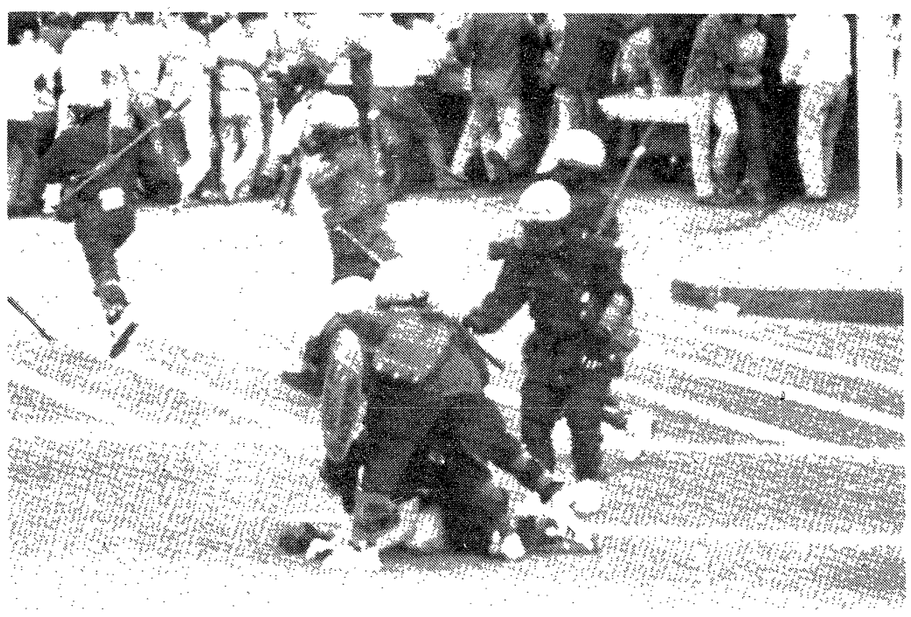
대학발전, 교육 및 행정개선 사항에서 직원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 지원이 신설됐는데 이는 직원 전문화로 행정능력향상을 위함이다. 부칙사항으로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변경되었는데 단체협약은 2년, 임금협정은 1년으로 이는 학교에서 제안했다.

이번 단체교섭의 가장 큰 변화로 꼽히는 것은 직원교육부문에 치중하고 인사제도 개선에 대한 실마리를 마련한 것이다.

등록금·예산비을 반영으로 2월말에 시작되년 단체교섭을 이들이 결정되기전에 독자적으로 이야기할 예정이라며 한 관계자는 "학교상황을 고려하고 본교발전을 바라기에 만족못하는 수준이지만 받아들인다"면서 내년도 임금인상시 충분히 반영되길 바랐다.

'95년 단체협약은 학교와의 논의가 덜 됐으며 원칙에만 합의하는 부분이 많았지만 미흡하게나마 전환 자리를 마련했다. 한편 인사이동으로 학교측 담당실무진이 바뀜에 따라 학교당국의 대응이 미진한것이 결함으로 꼽히기도 했다. 〈김은혜 기자〉

'5·18학살자 처벌 요구 시위
경찰, 시민 학생 구타…강제 해산



◇5·18광주 민중항쟁 15주년을 맞아 지난18일 3천여명의 학생들이 5·18학살자 처벌을 요구하며 시위를 가졌다. 가두시위 도중 경찰의 과잉진압에 시민들은 거세게 항의하는 모습도 보였다.

본교 학생 60여명을 포함한 학생 3천여명이 5·18광주 민주화항쟁 15주년인 지난 18일 5.18광주 학살자 처벌등을 요구하며 명동입구, 탑골공원 부근에서 시위를 보였다.

이날 오후 5시경 '5·18학살자 주범 전두환·노태우를 처벌하라'등의 구호를 외치며 명동 신세계백화점주위로 모여든 학생들은 가두시위도중 경찰과 대치, 최루탄을 쏘며 강제해산시키는 경찰들에 의해 해산됐다.

다시 종묘공원 부근에 모인학생들은 밤늦게까지 거리를 점거하고 시위를 하며 경찰과 대치, 최루탄과 최루액에 의한 해산을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한 여학생이 경찰의 심한 구타로 인해 실시, 을지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시민들이 "학생들이 뭘 들었길래 최루탄을 쏘고 난리냐"며 항의하자, 경찰은 시민에게 최루액을 뿌렸고 이에 시민들은 더욱 더 흥분해 경찰에게 거세게 항의했다.

이후 학생들은 연세대에서 정기집회를 가진 후 해산했다.

교편·총대, 감사실시 합의
지도교수제 —학생경비로 운영…위상정립 필요

총대의원회(의장=박대용·불교4)는 1/4분기감사중 '총장직속기구'라며 감사를 거부했던 교지편집위원회의 위상에 관한 문제가 해결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 9일 총대의원회는 감사일정에 따라 공문과 감사사업계획서를 교지편집위원회(편집장=정연하·역교3)에 전달하였고 이에 교지편집위원회가 총대의원회에 이의 신청서를 제기해 시작된 이 문제는 이후 총대의원회 감사국장과 교지편집위원회 편집장간의 몇 번의 협상을 통해 의견을 좁혀오다가 지난 18일 총대의원회 회의실에서 있었던 8차중앙위회의에서 △교지편집위원회는 학우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기존의 총학생자치기구와는 독립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학생자치언론기구로 존립되어야 한다. △재정은 기존의 방식인 학생경비로 충당한다. △편집권은 철저하게 보장받도록 회칙에 규정한다. △감사는 총학생회칙상 최고 감사기구인 총대의원회가 실시한다는 4가지 사항을 합의했다.

교지편집위원회는 지난 11일 이의신청서를 통해 '교지편집위원회는 총장의 위촉을 받은 지도교수가 예산, 예산감사, 예산집행, 인사 등 제반의 업무(편집권 제외)를 직접적으로 지도·감독해온 총장직속기구이므로 학생 감사기구인 총대의원회의 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또 교지편집위원회는 지난 제22대 총대의원회 감사에서 당시의 총학생회칙 제1장 제5조(지금은 제1장 제7조)에 의하여 교지편집위원회는 총학생회 산하기구로 구성되어 있지 않기에 시행할 수 없다는 총대의원회의 답변을 또 하나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총대의원회는 "교지편집위원회는 구성원이 학생이며 학우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특히 예산을 학생 경비에 근간하고 있다"라며 감사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총대의원회 김방욱(야간강좌 영문4)감사국장은 "지도교수가 있으면서 예산은 학생의 등록금에 근간하는 애매함때문에 교지편집위원회는 지금까지 감사를 받지 않았다"며 "하지만 애매한 교지편집위원회의 위상정립은 꼭 필요한 것"이라 말했다.

이후에 양측은 합의한 부분을 정착시키기위해 지속적인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지난 19일 실시예정이었던 학원자주화투쟁위원회, 중앙교과과정위원회, 학생복지위원회는 대동제 등 사업일정으로 다음달(6월) 3일로 연기됐고 지난 20일 실시한 졸업준비위원회감사는 별 무리없이 끝났다.

학생생활연구소 인·적성검사

학생생활연구소(소장=심익섭·행정학)는 4학년을 주요 대상으로 '기업체 취업대비 인·적성 검사'신청을 29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학생이 1천원을, 연구소에서 2천원을 부담하는 이번 검사는 인원을 1백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검사해석 및 상담은 연구소에서 무료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인·적성 검사는 기존의 학생생활연구소에서 실시해왔던 인·적성 검사보다 훨씬 더 자세한 개인의 취업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다.

올 2학기에도 실시예정인 본 검사에 대해 학생생활연구소의 연구원은 "기업체 취업에서 인·적성 검사의 비중이 날로 늘어가는 추세"라며 "학생들은 인·적성 검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할 것"을 당부했다. 본 검사의 실시일은 6월2일이고 검사장소는 검사장소는 학림관(J402)이다.

여학생부처 취업특강

여학생부처(부처장=박명희·가정교육)와 총여학생회(회장=김나영·교육4) 공동주최로 여학생 취업특강을 다음달 6월 2일과 3일 이틀간 소강당에서 실시한다.

이번 취업특강은 본교 여학생 2·3·4학년중 선착순으로 1백명을 오는 31일까지 접수 받는다.

일정으로는 2일 대졸여성의 취업가능분야정보 및 취업대책 훈련에 대한 강연, 인성·적성검사가 있고 3일은 '여성에게 직업이란? 주제의 강연과 사회 각 분야에 활동하는 선배와의 간담회가 있다.

참가비용은 적성검사비를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영어회화특강생 모집

외국어 교육원(원장=김정매·영어영문학)은 오는 6월19일부터 7월28일까지 여름방학중에 실시할 영어회화특강에 참가할 학생을 모집한다.

이번 특강은 15명의 인원으로 지난 1일부터 6주간 실시하고 있는 영어회화특강의 반응이 좋아 확대 실시하는 것이다.

인원은 한반당 15명 내외로 3반이 구성돼 전체 45명이며 지난 22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고 있다.

6주 30시간 강의를 특강의 수강료는 6만원이며 강의시간은 오전 9시, 10시, 11시로 50분간 명진관(A103)에서 진행된다.

강사는 예일대를 졸업하고 하버드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Mr. Muenzen이다.

검도부 전국대회우승

본교 동아리인 검도부가 전국제패의 쾌거를 이루었다.

지난 일요일 광명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37회 춘계 전국대학검도 연맹전에서 본교 검도부는 작년 추계 전국대학검도 연맹전 우승팀인 인하대를 꺾고 3승2패로 우승을 차지했다.

회전무대

속빈강정

○…일문학에 관심많은 한 학우, 도서관에서 컴퓨터를 두드린 결과, 찾고자 하는 책이 없다는 사실에 기가 막혔다는데.

그 책은 다름아닌 일문학의 두 거봉이자 노벨상 수상작가인 '오우에 겐자브로'와 '가와바따 야스나리'의 저서였다고.

이는 희귀도서도 아닌 기본도서중의 기본도서도 없는 우리학교의 열악한 도서관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듯.

이에 회전무대자 한마디 "어린이 위인책에 에디슨과 이순신장군이 빠진 격이라니. 쯧…"

이왕 쓴돈

○…요즘 곳곳에서 일일호프가 한창 열려 술고픔을 달래주지만 거기에 따른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데.

동문회에서, 동아리에서, 각 과에서, 여기저기서 터지는 통에 비용문제가 골치라고.

일일호프라고 해서 특별히 값이 싼것도 아니라 많은 학우들이 불평.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학우들의 귀한돈, 모으는 김에 올바른 일에 쓰여졌으면 좋겠네요."

말려

○…한국통신의 노사분쟁에 대한 온 국민의 관심이 대단하다는데. 그 파장에 대한 여파가 엄청나 방관만 할 수는 없는 문제.

'정보통신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국가전복의 음모가 있지 않고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김대통령의 발언은 더욱 더 관심을 고조시킨다고.

이에 본 회전문대자 왈 "파업보다 더 말리고 싶은 건 공권력투입임을 아셔야죠."

어떤 그리움

○…동국관의 어느 강의실 날씨는 한증막 안을 방불케할 정도로 찌는 듯한데.

날씨에도 짜증이 나고 수업에도 귀가 기울여지지않는 학우들은 룰러장의 음악소리로 창문도 열지 못한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전전긍긍하는 모습.

마침내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표정을 하고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한 학우의 푸념섞인 말 "룰러장의 노래소리는 오늘따라 왜이리 귀에 거슬리고 선풍기의 덜덜거리는 소리는 왜이리 그리운고."

전대기련 초청강연회
'상속받은…'저자 이충렬씨 강의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의장=정현철·전대신문사 편집장)은 '상속받은 나라에 가다'(도서출판 살림터)의 저자 이충렬씨 초청강연회를 개최한다.

오는 28일(일) 오후 3시 한양대학교 직녀관 세미나실에서 열릴 이 강연회에서는 김일성주석 사후의 북한의 실상과 생활상이 소개되고 질의·응답시간이 있을 예정이다.

공관위 감사실시
6월10일부터 6일간

복지사업 공동관리위원회(위원장=김진철·정치외교학 이하 공관위)는 지난 22일 오후4시 김진철교수 연구실에서 제1회 감사위원회의를 열었다.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을 유종한(회계학)교수로, 서동욱(무역4)경상대 학생회장, 박홍식(회계)대학원생을 위원으로 결정하고 감사위원장의 위촉을 받아 공인회계감사를 다음달 10일부터 15일까지 시행한다. 이번 감사는 늦어도 6월 3째주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관위는 운영위원회의를 오는 29일 개최한다.

'95학년도 계절학기 수업 공고

— 다 음 —

1. 수업기간: '95.6.27(화)~7.19(수) 16일간
2. 개설대상 교과목: '95학년도 1,2학기 전과목(단, 실험 및 실습과목은 제외)
3. 강좌개설 기준인원: 10명 이상
4. 수강자격 및 신청학점
   가. 수강자격: '95학년도 제1학기 재학생으로서
   (1)조기졸업 희망자
   (2)재수강자(해당교과목 「F」(과락)성적인 자)
   (3)서울캠퍼스와 경주캠퍼스간의 학점교류 희망자
   (4)일반선택 희망자
   나. 신청학점: 6학점 이내
   (매 계절학기의 취득학점은 통산하여 6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5. 성적처리
   가. 계절학기 수업에서 취득한 성적은 졸업학점에만 포함하며, 장학생 선발 및 학사징계와는 무관함.
   나. 「F」(과락)성적에 대하여 학적부에 등재하지 않음.
6. 수강신청
   가. 수강신청기간: '95.5.29(월)~5.31(수), 3일간
   나. 수강신청서 교부 및 접수
   (1)서울캠퍼스: 교무처 교무과(이부대학 학생은 이부대학 교학과로 신청)
   (2)경주캠퍼스: 경주캠퍼스 교무과
   다. 제출서류
   (1)계절하기 수업 수강신청서(소정액식)1매
   (2)사진1매(4cm×5cm)
   —최근 1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방신으로 수강신청서에 부착
   라. 수강료
   개설대상 교과목: 1학점당 61,000원
7. 개설대상 교과목 확정발표: '95.6.5(월)
8. 수강신청 변경기간: '95.6.7(수)~6.9(금), 3일간
9. 수업시간표 발표: '95.6.15(목)예정

교 무 처 장

공 고

무애양주동선생의 〈앙주동 전집〉 전12권 중 제1차분 5책(1~5)이 드디어 출간되었습니다.

이 전집을 간행중인 동국대학교 출판부에서는 출판기념회에 나오시는 분들에 한하여 특별히 정가의 30%의 할인 혜택을 드리고 동시에 전질에 대한 예약을 받습니다.

뜻이 있으신 분은 별도의 할인권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면, 2차분까지 포함하여 희망하시는 것으로 간주, 계속 할인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간행된 1차분 5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1. 고가연구	998P	21,000원
2. 여요전주	485P	10,000원
3. 국학연구논고	416P	8,000원
4. 문주반생기, 인생잡기	683P	12,000원
5. 지성의 광장	430P	9,000원

5권 합계 정가 60,000원—할인가 42,000원 보급

○체 제: 고급양장본, 포크로스, 접지(싸바리)케이스

※양주동전집 제2차분 7권은 1995년도 말까지 완간할 예정입니다.

출판기념회 일시: 5월26일 오후6시

장 소: 다향관

출 판 부 장

중국 단기유학생 선발

자매대학인 남경대학(남경소재)에 파견할 단기 유학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합니다.

인 원: 2—3명

조 건: 학비(80%감면): 1년 1200$,
기숙사(3식제공)및 생활비(1년): 3000$

유학기간: '95년9월1일—'96년8월31일

선발방법: 시험선발

응시자격: 전학과

시험일시: 6월5일 (월)

시험과목: 필기(30%), 회화(30%), 학교성적(30%), 면접(10%)

접수기간: 5월29일(월)—6월1일(목)

접 수 처: 국제부(3024, 서울), 학생과(2054, 경주)

신청서류: 지원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각1부)

특 전: 남경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점교류협정에 의거하여 인정함.

국 제 부 장

공 고

학내 범람하는 각종 게시물과 현수막이 단체와 개인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긍정적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질서하고 사후 관리가 되지않아 학교의 미관을 해칠뿐 아니라 건물까지 손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정하여 명랑하고 깨끗한 캠퍼스를 만들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칙은 1학기 시범운영을 거쳐 미비점을 보완한 후 2학기에 정식 시행할 예정입니다.

1. 게시물 용지는 학교에서 배부합니다.
   가. 배부장소: 각 단과대학 교학과(11개 교학과), 학생회관 수위실, 동국관M동 수위실(2개 수위실)
   나. 용지의 규격화

용지의 크기	용 도
전 지	학내 각 기구의 홍보용(주로 옥외 게시물)
2절지	홍보용 및 알림용(옥내외 게시물 공용)
4절지	동문회 알림용

   다. 홍보의 목적상 부득이한 경우 학교에서 배부하는 용지가 아니더라도 가능하나 용지의 규격은 지켜야 하며 게시기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라. 용지의 배부는 10매 내외로 제한합니다.
2. 건물 내외의 지정된 게시판 이외에 부착한 게시물은 제거합니다.
3. 현수막 관리: 현수막은 설치자가 철거하여야 하며 설치대 이외의 나무등에 설치한 현수막은 철거합니다. 건물에 설치하는 현수막은 사전에 학생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게시물과 현수막의 게시기간은 10일을 넘지 못합니다.
   ※6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 생 처 장

영화의 패러독스 김영빈 감독 '테러리스트'

관객에게 현실의 심각한 폭력 체험시키기엔 역부족

정 재 형
〈예술대 연영과 교수·영화평론가〉

작년부터 우리에겐 '게임의 법칙' '해적' '펄프픽션' '모래시계'(TV) '킬러' 그리고 이제 '테러리스트'에서 폭력표현의 영화시대를 구가하게 된다. 흔히 말하는 '영화는 현실의 반영'이라는 말대로라면 이 영화들은 하나같이 우리 현실의 폭력적 사건들을 그대로 되비추고 있는듯 싶다. 박한상 사건, 금융학원 이사장 살해사건, 동경지하철 독가스사건, 미국 정부건물 폭탄테러 사건 등등 굵직한 대형사건들만 나열해도 영화속의 폭력표현과 현실의 폭력상황이 일치해 나가고 있음을 느낄수 있다.

하지만 이 영화는 '현실의 반영'이 아니다. 언듯 보기엔 그런것 같지만 '영화는 이데올로기의 반영'인 것이다. 영화속에 표현된 폭력을 현실이라고 그대로 믿어선 곤란하다. 그것은 특정 이데올로기가 작용하여 재구성된 현실의 모습인 것이지 직접 그대로의 현실은 아닌 것이기 때문이다. 이데올로기는 얼마든지 왜곡, 조작이 가능하다. 만일 영화속에 표현된 이데올로기가 왜곡, 조작된 것이라면 당연히 영화속의 현실도 왜곡, 조작된 채 나타난다. 따라서 헐리우드 상업오락 영화속에 나타나는 폭력적 표현은 대부분 현실을 왜곡시킨다. 헐리우드 영화의 이데올로기는 이윤추구만을 동기로 하는 오락성향이기 때문에 폭력표현도 현실의 실상이라고 봐선 안된다. 그건 단지 '오락상품화된' 폭력표현이기 때문이다.

'김의 전쟁'이라는 영화를 통해 인종차별적 주제인 재일교포 김희로 사건을 박진감있게 묘사해낸 김영빈 감독은 '테러리스트'를 통해 이제 우리사회의 어둠인 폭력조직의 문제를 파헤쳐낸다. 이미 전제했듯이 영화속의 현실을 실제현실과 혼동해선 안된다. 영화 '테러리스트'속의 우리 사회는 이현세의 만화적 상상력과 허구, 헐리우드/홍콩식의 노골적인 폭력과 액션표현, 환영적 사실주의를 지향하는 부르조아 미학이 그 기반으로 작용하여 무엇보다도 자본주의적 이윤추구동기가 오락일변도로 장치화되어 있다는 점을 절대 무시해선 안된다.

오락적으로는 서구 어떤 영화에 뒤지지 않는 완성도를 유지하는 이 영화가 깊는 감동과 인생의 여운을 담는 성찰적 영화로 승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비단 서구 영화와의 우열적인 비교에서 찾을수 없다. 그렇게 비교해서도 안되겠지만, 우선 우리 시각에서 이 영화의 성취와 한계를 명확히 짚어냄으로써 알게 되는 사실이다.

영화적으로 이 영화는 동생과 형의 운명적 대결을 그린 멜로적 구성과 암흑가 영화의 공식인 무질서한 사회의 악과 그것을 무찌르는 법적 정의감의 투쟁이다. 원맨 히어로 공식이 기입하는 것도 바로 그 지점이다. 오락적 요소의 가장 큰 볼거리인 섹스와 폭력중 이 영화는 폭력을 선택한다.

이 영화가 성취해낸 부분이라면 오락적 완성도인데 그건 영화적인 전통상 그리 새로운 성취는 아니다. 더욱이 이 영화는 바라보는 감독의 견해가 피상적이라는 것이다. 우리 현실 혹은 어떤 현실도 이 영화에서처럼 선악 이분법적인 것은 아니다. 우리시대의 악은 모두 가면을 쓴 위악이므로, 영화에서처럼 특정 악당으로 인물화되어 나타나선 안된다. 그건 모순된 사회구조로 나타나며 그 해결 역시 일개인에 의해 파헤쳐질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영화적으로 장열한 최후 장면을 만들기 위해 주인공은 일부러 악의 소굴로 돌진해 들어간다. 예정된 영웅의 죽음과 그동안 주인공을 괴롭혀온 악당을 너무도 간단하게 제거하는 형사의 모습에서 이 영화는 깊이있는 현실의 체험보다는 현실과는 무관한 영화적 허구세계를 전달할 뿐이다. 이 영화는 영화적 폭력의 오락적 재미만을 만들고 있을 뿐 여전히 현실의 심각한 폭력을 관객에게 체험시키기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대학문화

⑥의미있는 재미 찾기

대동제가 한창이다. 제27대 총학생회는 '95통일맞이 목멱대동제 '발가락이 닮았네'라는 모토로 여러가지 행사를 준비했다. 이 모토는 우리라는 이름으로 더욱 커지는 공동체 지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

2박3일의 기간동안 진행되는 이번 대동제는 각 단과대와 과에서 준비한 행사들도, 예전보다 들뜬 분위기의 학생들도 교정 곳곳에서 볼수 있다.

과에서 기획한 행사들로는 영화상영, 카드·차·아이스크림·도시락·목걸이 판매등이 있고 각단대에서 준비한 행사로는 조국통일 글자쓰기·학자 사진전·야외영화상영등이 눈에 띈다.

또 총학에서 개최하는 통일방안 토론총회와 문과대가 준비한 통일윷놀이는 95대동제의 모토와 그의미에 적합한 행사로 평가할 수 있다.

이밖에도 각종 기획거리와 동아 곳곳에서 보이는 행사들은 '의미있는 재미찾기'를 위한 노력이 보이고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술판 또한 대단하다.

항상 있었던 모습이며 비판도 적지않았으나, 아직도 대동제 준비에서 가장 처음 눈에 들어오는 것은 '주막'을 짓는 모습이다.

90년대 학번들의 장점을 꼽을때 흔히들 지켜보는 것보다 직접 참여하려고 하는 '끼'가 있다고 말한다.

이번 대동제에서는 술 마시는 데만 끼를 발휘할 것이 아니라 토론회도 참여하고 대동놀이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여주이 어떨까.

통일조국의 그 대상을 함께 이야기하고 서먹했던 선·후배간의 정을 느껴볼수 있는 자리라면 이름에 걸맞는 '대동제'가 될수 있지 않은가 응기종기 모여앉은 학생들을 보며 생각해본다. 〈문화부〉

◇베스트셀러 만들기

자전소설=베스트셀러?

소설내용보다 주인공이 누구인가에 관심집중

소설을 읽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무엇일까?

보통의 독자라면 스토리 전개를 따라가며 읽는수가 많고, 독자에게 어필하는 주인공이라면 으레 작가와 연결시켜 보는 습관(?)때문에 피해를 보는 작가도 있다.

예를 들면 '무소의 뿔처럼 가라'의 주인공 혜완이 작가 공지영일거라는 일부의 추측으로 작가가 직접 "내가 아니다"라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작가 공지영은 작중인물 혜완이 자신이 아니라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얼마전에 출간된 김형경의 소설 '세월'이 또다시 이런 과정을 밟을듯 하다. '세월'은 작가 김형경의 자전 소설이라고 애초부터 규정지은 탓에 공지영처럼 고통으로 일관된 인터뷰를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소설의 주인공 김정숙을 성폭행한 뒤 7년간 동거를 강요한 작품속 하현규라는 또하나의 주인공이 문단에서 유명한 시인겸 소설가라는 점이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새들은 제이름을 부르며 운다'에서 김형경은 80년대를 뜨겁게 보냈던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버거워하고 그 시절을 정리해감에 있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감각있게 표현해 최영미등과 더불어 '60년대 작가군'으로 일컬어질만 하다. 그랬던 만큼 그녀의 작품은 작품만으로도, 삶을 깊이있게 느껴가는 것만으로도 높이 평가될만한데도 작품내적인 완성도보다 문제의 하헌규라는 인물이 도대체 누구인가에 혈안이 되어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작가에게 있어서나 작가를 애정어린 눈으로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비근한 예로 이문열의 작품 '사로잡힌 악령'을 들수가 있다. 다른 점이라면 김형경은 하헌규라고 지칭되는 인물을 비난하기 위해서 소설을 쓴 것이 아니라 자신을 키운 새월 앞에 겸허해야 함을 이야기하기 이해 자신의 과거를 기꺼이 토로한 것이지만 이문열의 경우 평소에 관계가 편치않던 작가 '고은'에 대한 정면적인 비난이라 더욱 화제가 됐고 급기야는 자신의 작품 목록에서 '사로잡힌 악령'을 뺄 것이며 다시는 그것을 인쇄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표를 해야했다.

여기에서 우려가 되는 점은 '베스트셀러'로 만들기 위한 상업주의에서 기인한 발상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유명한 작가라고 해서 무조건 잘 팔린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독자들의 눈길을 끌기에는 아주 적합한 조건으로 '문제의 인물이 문단에서 활동하는 어떤 사람인데 소설을 읽어보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식의 광고효과를 노리는 것은 아닌지.

이것은 단시일 내에 판매성적을 올리고 사람들간의 화제거리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작가의 작품활동이나 문학사의 성과 또는 독자의 수준 향상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베스트셀러가 되기위한 조건으로 언젠가부터 광고가 끕히기 시작했다. 보는 사람의 눈에 확 띄는 광고로 선택했다가 독자가 작품을 읽고나서 허탈해한다면 다시 그 작가의 작품을 찾고 싶어하겠는가.

작품세계를 애정과 비판의 눈으로 지켜보는 것이 독자된 도리가 아닌가

독자들로 하여금 그런 식의 호감으로 서점을 찾게하는 상업성을 뿌리뽑게 할 수 있는, 광고의 힘을 빌지 않고 작품성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풍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혹시나 이 기사를 읽고 김형경의 '세월'을 찾게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녀의 뼈아픈 젊은 시절에 공감하는 것으로 그치기를.

〈이유리기자〉

메아리

초고속사회

▲아침 도심거리는 하루중 가장 바쁘다. 한물결로 휩쓸려 가는 사람들은 앞만 보고 잰 걸음을 걷는다. 차도엔 교복으로 가득한 유리창을 자랑하는 버스가 줄줄이 거북이 걸음을 걷는다. 횡단보도는 보도블럭에서 내려서 있는 사람들과 경계선을 넘어선 차들로 50%만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땅바닥을 보며 걷기엔 앞뒤로 신발들이 너무나 많이 보인다. ▲오전 지하철은 그야말로 지옥철이다. '이 역은 승강장 사이가 넓기때문에 내리고 타실때 조심하기 바랍니다'는 방송은 '이 역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한발짝 늦게 내려면 깔릴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기 바랍니다'로 바뀌는게 바람직하다. 지하철안에서 팔을 가슴높이만큼 올려놓고 앞 사람을·향하는 것은 기본 자세가 되어버렸듯이 다른 사람을 경계하고 뒤처지지 않으려는 심리가 하늘을 찌른다. ▲신문을 보면 요즘 사회가 바쁘게 움직인다는 사실이 피부로 느껴진다. 하루하루 변하는 교육정책, 대외정책, 대북정책 등등 초고속사회란걸 과시한다. 국가나 학교 정책에 있어 경쟁심리는 초고속을 능가한다. 옆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 좁은 교수연구실 하나를 두명이 같이 쓰고, 신설학과 학회실문제가 해마다 발생하고, 커리큘럼이 마련되지 않아 교수를 채용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 이러한 현실아래 국가는 경쟁을 부추킨다. 학교는 질세라 그 많은 발전계획들을 뻥뻥 터뜨린다. '우리가 먼저 해야 살아남는다.'는 논리아래 앞을 향해 바삐 움직이지만 옆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뒷전이다. ▲타인과 경쟁하며 초고속사회에 적응하는 대한민국 도심지 사람들이지만 화장실을 갈땐 아무리 급하더라도 화장지는 챙긴다. '화장지'가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이지만 화장실 갈땐 꼭 필요한 존재다. 요즘 사회풍조는 화장실에서의 '화장지' 같은 존재를 너무나 등한시한다. 하루하루 변화되는 여러정책들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더욱 바쁘게 만들어버리고 여유를 잃어버리게 한다. 바쁜 것도 좋지만 잠깐 화장실갈 때의 여유를 되찾아 보는 것이 어떨까?

〈주〉

토박이

서 승 현

(12)

1995학년도 후기 각 대학원 신입생 모집

대 학 원 (02)260-3093~4

1.모집과정 및 학과 : 석사과정,박사과정. 단,*는 박사과정 제외
가.인문사회계:불교, 선, 인도철, 국어국문, 영어영문,(*)독어독문, (*)일어일문, 사, 미술사, 철, 국민윤리, 교육, (*)한문, 법, 정치, 행정, 경찰행정, 사회, 경제, 경영, 무역, 회계, 농업경제, 지리학과
나.이 학 계:수, 물리, 화, 통계, 응용생물, 가정학과
다.공 학 계:전자공, 컴퓨터공, 전기공, 토목공, 건축공, 화학공, 식품공, 산업공, (*)전자계산학과
라.자 연 계:농, 임, (*)조경학과
마.예 체 능 계:(*)체육, (*)미술, 연극영화학과
바.의 학 계 한의, 의학과
2.원서교부 : '95. 5. 29(월)~6. 8(목)
3.원서접수 : '95 6 5(월)~6. 8(목)
4.전형일시 및 장소 : '95 6 16(금) 10:00 동국관
5.시험과목
가.석사과정:영어(독해 4문항), 전공(공통필수과목),구술고사(학과별실시)
나.박사과정:영어(독해 4문항),전공(공통,세부전공),
제2외국어(불교,인도철,철,한의학과에 한함),구술고사(학과별실시)

불교대학원(야간) (02)260-3097~8

1.모집과정 및 학과 : 석사과정,연구과정
가.불교학과:불교학,선학 나.불교사학과:불교사,예술사
다.불교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포교학
2.원서교부 및 접수 : '95. 6. 1(목)~'95. 6. 15(목)
3.전형일시 및 방법
'95 6. 22(목) 14:00 영어, 전공, 면접(연구과정은 서류전형 및 면접)
4.특 전 : (관리자 과정도 동일)
조계종 재적승려 및 공무원 교직원, 군인, 불교언론인은 소정의 장학금 지급

■ 관리자 과정(야간) ■

1.지원자격:조계종의 대덕 법계품수 승려, 각 종단의 간부, 각 신행 단체의 간부 및 대표, 신심이 돈독한 자
2.원서교부 및 접수 : '95. 6 1(목)~6. 15(목)
3.전형일시 및 방법 : '95. 6 23(금) 13:00 서류전형 및 면접

행정대학원(야간) (02)260-3102~3

1.모집과정 및 전공 : 석사과정, 연구과정
가.행 정 학 과:일반행정, 공공정책, 관광행정, 언론홍보, 환경행정
나.안보행정학과 외교국방, 방위산업, 군사전략, 안보정책
다.공안행정학과 경찰행정, 소방행정, 교도행정, 사법행정, 사경비
라.복지행정학과 사회복지
마.북 한 학 과 북한체제, 북한행정, 북한사회, 통일정책
바.지방자치학과 지방행정, 지방의회, 지방재정, 지역개발
2.원서교부 및 접수 : '95. 6 1(목)~ 6 12(월)
3.전형일시 및 장소 : '95 6. 17(토) 14 00 본 대학원
4.전형방법
가.석사과정 행정학, 구술시험 및 면접
나.연구과정:서류전형 및 면접
5.특 전
가 공무원 전원에게 졸업시까지 장학금을 지급함(수업료 30%)
나 사회복지전공 졸업자는 1급 복지사 자격증 취득

■ 행정관리자 과정(야간) ■

1.지원자격 : 정부 각 기관의 5급이상 공무원 및 각 군의 영관급이상 장교, 정부투자기관 및 사기업체의 임원, 사회 지도급 인사,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원서교부 및 접수 : '95. 6. 1(목)~6. 16(금)
3.전형일시 및 방법 : '95. 6. 17(토) 10:00 서류전형, 면접

경영대학원(야간) (02)260-3106~7

1.모집과정 및 전공 : 석사과정, 연구과정
가.경제학과:산업경제, 금융 및 재정 전공
나.무역학과:무역이론, 무역실무, 무역보험 및 해운, 무역경영 전공
다.경영학과:조직 및 인사관리, 생산관리 및 계량경영, 마아케팅, 재무관리, 국제경영 전공
라.회계학과:관리회계, 재무회계, 세무회계 전공
마.경영정보학과:정보시스템, 경영정보시스템 전공
바.노사관리학과:노사관리 전공
사.부동산학과:부동산 전공
2.원서교부 및 접수 : '95. 5. 24(수)~6. 2(금)
3.전형일시 : '95. 6. 10(토) 14:00
4.전형방법 : 논술(경영학원론)및 면접(*전공분야 5년 이상 경력자 우대)
5.특 전 : 조계종 재적승려, 공무원, 교직원, 공인회계사 등에 대하여 본 대학원 장학금 지급내규에 의거 장학금을 지급함 (경영자 과정도 동일)

■ 경영자 과정(야간) ■

1.지원자격 : 기업체의 대표 및 간부, 사회단체의 대표 및 간부, 노조간부, 군 고급장교 및 정부 각 기관의 5급이상 공무원, 기타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2.원서교부 및 접수 : '95. 5 24(수)~6. 2(금)
3.전형일시 및 방법 : '95 6. 10(토) 10:00 서류전형 및 면접

교육대학원(야간) (02)260-3109~10

1. 모집과정 : 석사과정, 연구과정
가. 교육학과:교육행정, 교육경영 상담교육, 유아교육 전공
나 교과교육학과 국어, 지리 역사 수학, 윤리, 철학 미술, 한문, 체육, 영어, 물리, 화학, 생물, 가정, 전자계산 종교, 중국어교육 전공
2. 원서교부 및 접수 : '95.5 22(월)~'95 6 2(금)
3. 전형일시 및 방법 : '95 6 10(토)14:00 서류전형 면접 및 전공구술시험
4. 특 전
가 공사립교육기관의 교사 또는 공무원, 조계종 재적승려 등에게 장학금 지급
나 공사립교육기관의 재직교사, 정부행정기관 재직자는 경력을 감안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평점시 가산점 부여

정보산업대학원(야간) (02)260-3722~3

1. 모집과정 및 전공 : 석사과정, 연구과정
가 정보관리학과.정보관리전공 나. 전자계산학과 전자계산전공
다 신문방송학과 신문방송, 출판잡지전공
라 광고홍보학과 광고홍보전공 마 정보통신학과.정보통신 전공
2. 원서교부 및 접수 : '95 5 29(월)~6 9(금)
3. 전형일시 및 장소 : '95 6 17(토) 14 00 본 대학원
4. 전형방법
가. 석사과정 전공필기시험(정보관리, 전자계산학과 컴퓨터개론, 신문방송, 광고홍보학과 논술고사 정보통신학과.정보통신개론)및 면접
나. 연구과정:서류전형 및 면접
5. 특 전
가 언론인, 공무원, 교직원, 군인에게는 각종 장학금지급
나 해당분야 경력자는 우대함

■ 정보산업관리자 과정 ■

1. 지원자격 : 언론계, 기업체, 국가기관, 군인, 사회단체의 중견관리자
2. 원서교부 및 접수, 전형일시 및 방법 : 연구과정과 동일.

산업기술대학원(야간) (02)260-3602~3

1. 모집과정 및 전공 : 석사과정, 연구과정
산업과학과:전자 전기공학, 컴퓨터공학, 기계공학, 전설공학, 화학공학, 재료공학, 식품공학, 산업공학, 농림자원전공
2. 원서교부 및 접수 : '95 5. 31(수)~'95. 6 14(수)
3. 전형일시 및 방법 : '95 6 17(토) 14 00 서류전형 면접
4. 특 전
가 국가기관 및 기업체의 중견간부와 장기 실무 경험자는 전형시 우대함
나 공무원, 군인, 교직원, 국가산업체 및 유수한 기업체 중견간부에게는 각종 장학금을 지급함

■ 산업관리자과정(야간) ■

1. 지원자격 : 공,사기업체 임원 및 중견간부, 고급 공무원 및 장교, 개인사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서교부 및 접수, 전형일시 및 방법 : 석사과정 및 연구과정과 동일

문화예술대학원(야간) (02)260-3606~7

1. 모집과정 및 전공 : 석사과정, 연구과정
가 문예창작학과.문예창작전공
나 연극영화학과 공연예술, 영상예술전공
다 불교예술문화학과 불교미술, 불교음악, 문화재전공
2. 원서교부 및 접수 : '95 5. 29(월)~6 9(금)
3. 전형일시 및 방법 : '95 6 17(토) 10:00
가. 석사과정.필기시험(논술) 및 면접 나. 연구과정:서류전형 및 면접
4. 특 전
가 각종 장학금 지급 제도 있음
나 해외자매대학 등의 연수에 참가할 기회 있음

■ 문화예술관리자과정(야간) ■

1. 지원자격 : 정부 각 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본사 주지급 스님, 언론 문화예술 및 유관기관의 임원, 기업체 임원, 사회지도급 인사,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서교부 및 접수, 전형일시 및 방법 : 연구과정과 동일

지역개발대학원(경주캠퍼스,야간) (0561)770-2092~3

1. 모집과정 및 전공 : 석사과정, 연구과정
가. 개발행정학과:개발행정, 지방자치, 지역사회개발전공
나 지역경제학과.지역경제개발, 산업경영전공
2. 원서교부 및 접수 : '95 6. 5(월)~6. 15(목)
3. 전형일시 및 장소 : '95 6. 17(토) 14:00 본 대학원(경주캠퍼스 진흥관)
4. 전형방법
가. 석사과정.논문, 서류전형, 면접 나 연구과정 서류전형, 면접
5. 특 전
가 기업체, 정부부서 실무경험자 전형에서 우대
나 공무원 전원에게 졸업시까지 장학금(수업료 30%) 지급

■ 관리자과정(야간) ■

1. 지원자격 : 정부 각 기관의 관리자급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또는 사기업체의 간부, 공공 및 사회단체의 간부
2. 원서교부 및 접수, 전형일시 및 방법 : 연구과정과 동일

* 토·일요일은 원서교부만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대학원 교학부로 문의

본고는 홍보학회를 비롯으로 학술적 연구목적 전문지식 및 지역에 대한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상업적 목적을 전혀 포함하지 않고 있음을 밝혀둡니다.

동국대학교